



종말을 향해 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그 말은 바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모든 기독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23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3월 2일 (토) 제 1720호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은사적 표현, 인터넷 예배 활성화...

처치리더스.컴, 캐리 니호프 목사의 2019년 5가지 파격적 교회문화 트렌드 소개

강사이자 팟캐스터인 캐리 니호프(Carey Nieuwhof)는 전직 변호사이자 커넥서스교회(Connexus Church)의 개척 목사다. 커넥서스교회는 캐나다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 중 하나다. 6백만여 명의 조회 수를 가진, '캐리 니호프 리더십 팟캐스트(Carey Nieuwhof Leadership Podcast)'는 오늘날 최고 지도자와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출연한다.

니호프 목사는 주변의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빨리 변하는 것 같은 이때에, 2019년에는 교회 지도자가 어떤 동향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 라는 관점에서 2019년에 다뤄져야 할 5가지 파격적인 교회 트렌드를 소개한다. 그는 지난 3년간 파격적인 교회

동향에 관한 글을 쓰며 항상 새해를 시작했다. 바로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가 문화의 동향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복음으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의 변화를 보지 못하는 지도자는 결국 자동차가 다니는 시대에 자전거를 타고, 온라인 쇼핑 몰보다는 근처 가게를 이용하며,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 필름을 넣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는 강조한다.

다음 세대와 소통하고 싶다면 변화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잘 이루도록 하기 위해 2019년에 벌어질 5가지 파격적인 교회 동향을 소개해준다(5 Disruptive Church Trends That Will Rule 2019).

인터넷 예배에 실제 인력배치, 소비자중심 접근 영향력 상실, 나쁜 직장문화 배격

1. 인기 있는 교회가 주춤하는 동안 교회의 은사적 표현(Charismatic Expressions)을 강조하는 교회는 성장할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동향이 생겨났다. 은사적 표현을 강조하는 교회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 성장세를 보이는데, 이들 교회는 예배와 설교, 문화에 대해 더 은사적인 표현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은사적'이라는 의미를 '신학적으로' 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요즘 대부분 성장하는 교회는 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고, 이런 교회는 예배와 교육, 그리고 가르치고 모으는 방법이 좀 더 의미심장하고 은사적이다. 몇몇 특징은 이런 동향으로 중



합해볼 수 있다:

△단순히 수동적인 대중들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배하는 예배.

△머리에 말하는 것 뿐 아니라 가슴에 말하는 설교자.

△그들이 가르친 만큼 강하게 설교할 수 있는 전도자들.

△규모와 상관없이 어쩌다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실제로 서로 관계를 맺는 성도와 그들의 사명.

△내재 뿐 아니라 초월의 순간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개인적이다. 더 감정적이다. 더 진짜 같다. 그리고 당신은 이를 느낄 수 있다.

이런 논리와 정의에 허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3면으로 계속)

UMC 특별총회 “전통주의 플랜” 본회의 상정 한인교회들 한숨 돌렸다!

미연합감리교회(UMC)의 동성에 정책을 결정하는 특별총회가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폐회를 하루 앞둔 25일 보수적인 “전통주의 플랜”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됐다.

통과가 유력시 될 것으로 예상됐던 하나의 교회 플랜(One Church Plan)이 부결되고 전통주의 플랜(Connexions Plan)이 상정되는 대반전이 연출된 것. 이에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다.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전 세계 4만4천여 개의 교회와 1,200만 신도를 가진 미국연합감리교단(UMC)이 성소수자 이슈를 공식적으로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여서 초미의 관심 속에 개최됐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지상을 통해 소개된 대로 이번 총회는 3개의 플랜인 전통주의 플랜(Traditional Plan), 하나의 교회 플랜(One Church Plan), 연대적 총회 플랜(Connectional Conference Plan)이 상정안건으로 올라왔다.

UMC총회는 미국 총회와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등 해외총회에서 파견된 대의원들이 모여 투표를 통해 안건을 상정 및 통과하게 되는데 미국 총회와 해외총회의 대의원 비율은 6대 4다. 미국총회의 경우 총감독회에서 하나의 교회 플랜을 선호하고 있기에 이번 특별총회에서는 그동안의 UMC의 노선에서 탈피해 성소수자 이슈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교회 플랜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동성애에

대해 적대적인 해외총회의 대의원들은 모두 전통주의 플랜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 이 되기에 신학적 노선이 다양한 미국총회의 대의원들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가 변수로 여겨졌지만 결국 미국장로교(PCUSA)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쪽으로 예상이 됐다. 그러나 총회 투표를 열었을 때 대부분의 예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반전이 연출됐다.

25일 오전에 열린 임법위원회에서 총대들은 “전통주의 플랜”은 56%(찬성 461, 반대 359)의 지지, “하나의 교회 플랜”은 47%(찬성 386, 반대 436)의 지지, “단순한 플랜”은 40%(찬성 323, 반대 494)의 지지를 보였다.

따라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전통주의 플랜”이 본회의에 상정돼 마지막 날 26일 투표에 들어간다. 또 “전통주의 플랜”과 함께 일정한 제한을 두고, 교회의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건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총회는 864명이 대의원으로 참석했으며 대의원 가운데 한인인 곡지선·박종우·장위현·이인용·툼 최, 임우재 목사와 평신도 총대인 김형준 장로(오콜라호마 한인제일교회) 등 한국인 대의원과 예비 대의원 20명, 그리고 박정찬·정희수 감독, 조영진 감독(은태) 등 3인이 참석했다.

한편 UMC 특별총회는 1970년 총회가 Methodist와 Evangelical United Brethren 교단의 합병문제를 다루기 위해 처음 열린 후 이번이 두 번째다.

(박준호 기자)



3면 시론 은희곤 목사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13면 선교의 창 송종록 목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부(DCM-온라인 프로그램)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장장
ATS 정회원 워싱턴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201)346-0030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별정 가격별 동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sb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3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43rd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대 제위께 문안 드립니다.

제 43회 총회소집을 공고하며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를 위한 호텔 예약 일정과 등록을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1. 총회일시 주후 2019년 5월 21일(화) - 5월 24일(금) (3박 4일)
- 2. 총회장소 HILTON LOS ANGELES AIRPORT
5711 W. Century Bl. L.A., CA 90045 (Tel: 310-410-4000)
- 3. 숙 식 비 총회 기간의 숙식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미화(USD)입니다.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1차(2월 9일)	2차(3월 9일)	3차(4월 6일)
2인1실(1인당)	\$ 439	\$ 479	\$ 519
1인1실	\$ 759	\$ 799	\$ 840
부부	\$ 859	\$ 919	\$ 999
원로/공로 목사 (2인 1실)	\$ 219	\$ 259	\$ 299
(부부)	\$ 658	\$ 679	\$ 719

* 각 노회 원로목사님은 총회(제33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 참가비 50% 할인된 가격입니다.

- 1) 개인 숙박 개인적으로 숙소를 정하시고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등록비 \$150을 납부하셔야 하며, 호텔에서 식사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식비 \$250을 납부하거나 식권을 구입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하셔야 합니다.
- 2) 총회에 하루 일찍 오실 분이나, 폐회 후 하루 늦게 가시는 분들 중에 호텔 예약이 필요하신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4. 등록 및 송금 안내
등록 신청서와 송금은 아래의 주소로 check 혹은 money order로 보내 주십시오.
(미국 외에서 등록하시는 분은 US money order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취인 (Pay to the order) : THE CALIFORNIA PRESBYTERY
- * 주 소 : Elder Choong K. Rha (나충길 장로)
Evergreen Mission Church
6952 Van Nuys Bl. Van Nuys, CA 91405

- 5. 교통안내
LAX 공항에 내리셔서 짐을 찾으시고 나오시면 15미터 전방에 호텔 셔틀버스를 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Hilton 호텔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매 15분 마다 24시간 운행 합니다. 반드시 LA 공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항으로 오시면 픽업이 어렵습니다.
- 6. 접 수
첫째 날 (5월 21일, 화) 접수는 오후 2시부터, 저녁식사는 오후 5시부터,
그리고 개회예배는 오후 7시에 드립니다.
(1) 등록마감일(4월6일) 이후 신청 시 호텔숙박은 준비위원회에서 보강해 드릴 수 없습니다.
(2) 등록하신 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호텔과의 계약상 등록비는 돌려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동시 통역 및 제반사항 안내
(1) 영어노회 총대를 위하여 동시통역 시설을 준비하였습니다.
(2) 문의 사항이나 도움을 청하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호 텔 : 고승경 목사 (760) 927-5982
관 광 : 정병노 목사 (213) 820-7240
총 무 : 이준우 목사 (818) 282-6154

주후 2019년 1월 5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3회 총회 준비위원회

총회장 김재열 목사
위원장 김요섭 목사
서 기 이성주 목사

● 발행인 칼럼 ●

대안(代案)의 삶은 타당(妥當)한가?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적인 수준이라 양궁경기를 여러 차례 본적이 있다. 선수가 숨을 죽이며 활시위를 쫓을 때 같이 숨을 죽였다가 휘하고 날아간 화살이 과녁에 꽂힐 때 그 결과에 따라 환호도 하고 탄식도 뱉곤 했다. 우리가 잘 맞았다고 소리 지르는 사이 과녁은 얼마나 아파할까? 정조준해서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온 몸으로 맞아야 하는 과녁이 입이 있다면 “그만, 이젠 제발 그만”이라고 외칠 것 같다. 내가 과녁이라면 나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저런 화살들이 날아올 때 그 화살들에 박혀 단말마(斷末魔)와 함께 이리저리 비틀대다 쓰러질 것이다.

어렸을 적에 동네에 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 원형 수도관(水管)이 널브러져 있곤 했다. 그 수도관 속에서 놀기도 했다. 땀 뚝뚝나는 과녁과는 전혀 다르다. 무엇이 자기를 향해 밀려오더라도 개의(介意)치 않는 것은 그것이 곧 통과해 지나갈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과녁의 삶이 보편적인 가운데 통로의 삶은 단연 탁월한 대안(代案)의 삶이다. 누구의 말을 들어도 그것을 끌어안지 않고 다 흘려보내니 더 이상 힘들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안’이라는 말은 얼마나 신선한가. 질식할 것 같은 제도권의 교육을 견디다 못해 대안학교가 여기저기서 유행처럼 일어났다. 대안의 삶을 일찍이 노려한 사람이 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마이 웨이(My Way)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선언적 노래이다. 그 가사의 일부는 이렇다.

“친구여, 분명히 말할 게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얘기를 할게요. 난 충만한 인생을 살았답니다. 모든 길을 다 가봤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방식대로 했다는 거예요. 후회요? 조금 있었죠, 하지만 입 밖에 내서 말할 정도는 아니죠.” 청소년 때나 청년 때 이 노래를 듣고 일탈(逸脫)을 꿈꾸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요즈음도 대안의 삶을 꿈꾸는 청년들이 그 줄을 잇고 있다. 다소도 발칙적인 제목을 가진 “하마터면 열십이 살 뻔했다”라는 책도 그런 삶을 부추기고 있다. 왜 굳이 노력하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삶을 사느냐는 것이다. 대안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다. 사람들이 성적(性的) 지향의 대안을 찾아 살아온 지가 벌써 오래고 계속 사회적 진통과 종교적 논쟁을 생산하고 있다.

대안의 삶은 타당(妥當)한가? 불가(不可)한 대안이 있고, 가능(可能)한 대안이 있다. 상대적으로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범은 그 무엇으로도 대치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말씀하신 인간의 존재와 사명에는 대안이 없다.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좋다. 성경보다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성경을 집어 던지고 맘대로 살 수 있겠다. 경험주의와 이성주의의 허구성을 역사에서 보고도 왜 또 다시 성경을 경험과 생각의 잣대로 해체하려 하는가?

어느 교회가 어느 교단이나 성경 위에 있을 수 없다. 대안의 삶을 꿈꾸며 성경을 수정하려는 회개가 어찌 교단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을 떠난 대안의 삶을 시도하지 말자. 논의도 하지 말자. 그 누구도 그럴 자격이 없고, 어떤 교단도 그럴 권리는 없다.

좌파의 화려한 컴백이 보인다!

이코노미스트, 미국과 유럽에서 사회주의 부활... 이를 대안으로 믿는 밀레니엄 세대 분석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20세기 이념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자본주의가 승리했고, 사회주의는 경제적 실패와 정치적 억압을 뜻하는 개념으로 전락했다. 사회주의는 변방의 모임이나 실패한 국가, 중국 공산당이라는 의례 속에서만 겨우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30년이 흐른 지금, 사회주의가 화려한 컴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미국 민주당 초선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 자체가 좌측으로 선화하는 분위기다. 또한 영

국 노동당의 강경파 리더 제레미 코빈 역시 여전히 유력한 총리 후보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 세대 즉 밀레니엄들에게 사회주의는 단순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세상의 불평등과 빈익부 부익부 현상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달콤한 유희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코노미스트지는 좌파가 왜 인기를 얻고 있는지, 그리고 밀레니엄들이 왜 추종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준다(Millennial socialism: A new kind of left-wing doctrine is emerging. It is not the answer to capitalism's problems).

사회주의는 현대 서구 사회의 병폐를 날카롭게 파고들면서 부활하고 있다. 우파 정치인들이 이념 전쟁 자체를 포기하고 국수주의나 복고주의로 회귀하는 동안, 좌파는 불평등과 환경 문제에 집중하면서 엘리트가 아닌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방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새로 태어난 좌파가 옳은 말을



망이 널리 퍼져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에서 재분배에 대한 지지는 1990년대와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인들은 가장 최근의 대통령 선거에서 법인세 감면을 약속한 억만장자를 뽑았다. 어떤 면에서 영국인들은 미국인보다도 부자들에게 더 너그러운 편이다. 신 좌파의 진단이 너무 비관적

밀레니얼, “사회주의는 불평등과 빈익부 부익부 현상 한방에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 로 인식

하는 부분도 많지만,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주의가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도 있다. 정책적으로는 예산과 관료주의, 시장에 대해 너무 순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부활한 사회주의의 활기는 놀라운 정도다. 90년대에는 좌파 정당들이 가운데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와 미국의 빌 클린턴은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제 3의 길”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람들, 특히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오늘날의 좌파는 “제 3의 길”은 끝난 얘기라고 생각한다. “신 사회주의자”의 다수는 놀랍게도 다른 아닌 밀레니얼 세대다. 갤럽 설문조사에서는 18-29세 미국인의 51%가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가 얻은 청년층 득표수는 힐러리와 트럼프가 얻은 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 2017년 프랑크 대선에서는 24세 이하 유권자의 3분의 1이 강경 좌파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그렇다고 “밀레니얼 사회주의자”가 다 어린 것은 아니다. 제레미 코빈(1949년 생)의 열성팬 가운데는 코빈의 또래도 많다.

밀레니얼 사회주의의 목표가 모두 급진적인 것만도 아니다.

미국의 사회주의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보편적 의료보험제도는 여러 선진국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들은 또한 시장경제의 이점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란다. 발호 중인 아이디어들로 이뤄진 운동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유럽과 미국에서 좌파란 넓고 느슨한 연대다.

물론 공통의 주제들이 있다. 밀레니얼 사회주의자들은 불평등이 극단으로 치달았고 경제는 기득권의 이익만을 대변하도록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대중이 균형을 되찾기 위해 국가가 권력과 소득을 재분배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이들은 또한 근시안적 관점과 로비 때문에 정부가 기후 재앙의 가능성을 무시하게 됐다고 믿는다. 사회와 경제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지배 계급(당국, 관료주의, 기업)이 더 이상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며, 이 구조가 “민주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비업계의 문제나 방치되는 환경이슈 등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서구사회의 불평등 문제 역시 지난 40년 간 더욱 심각해졌다. 상위 1%의 평균소득은 242% 올랐는데, 이는 미국 평균의 소득 상승률의 6배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신 좌파”가 중요한 부분을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처방전은

대부분 잘못됐다.

진단이 잘못된 부분부터 살펴본다.

먼저 불평등이 계속해서 끝 간 데 없이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은 잘못됐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중위 가구소득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10% 상승했다. 그러나 2017년에 25세에서 54세 미국인 100명 중 풀타임으로 고용된 사람은 97명이었다. 2005년에는 89명이었다. 불안함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정적인 일자리의 부족이 아니라 경기 불황의 위험성이다.

밀레니얼 사회주의자들은 또한 여론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가고 기회가 줄어들어 불만인 것은 사실이다. 불평등 역시 불만 요소다. 모두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는 부유층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인기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급진적인 재분배에 대한 열

이라 문제라면 처방은 더 큰 문제다. 이들의 처방은 대부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정치적으로도 위험하다. 재정정책을 예로 들어본다.

일부 신 좌파들은 정부의 서비스를 크게 확대하는 재원으로 로지 부자들에게 대한 세금 인상으로 충원될 수 있다는 믿음에 부채질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지금 있는 복지정책을 유지만 하려해도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야 하는 판이다.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의 주장대로 최상위 소득자에게 70%의 세금을 걷어 더 추가로 걷히는 세금은 120억 달러, 총 세입의 0.3%에 불과하다.

일부 급진주의자들은 “현대통화이론”이라는 것을 지지하면서 정부가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지출에 필요한 돈을 자유롭게 빌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1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674-7982 (대표) (323)665-0009 (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6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718)886-4424 (편집국)
Fax: (718)886-0074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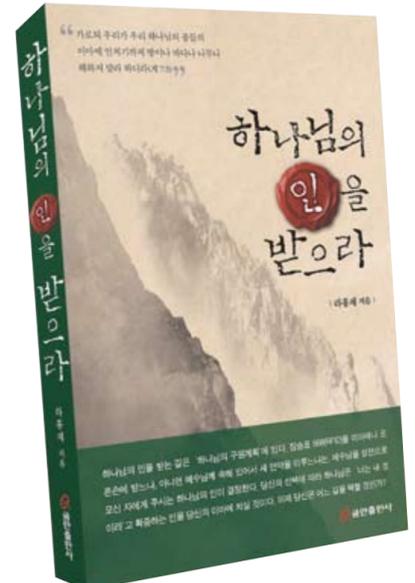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 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 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 하나님의 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공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 후 POWER POINT와 모든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은사적 표현, 인터넷 예배 활성화...

(1면에서 계속)

필자(캐리 니호프)는 영광스럽게도 매해 전 세계에 연설하며 수천 명의 지도자와 연결돼 있다. 이것은 그저 필자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은 자유롭고, 특히 잘 정의되지 않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이, 순전히 인기 있는 교회가 점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서 '인기 있다(Attractual)'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런 교회의 찬양대는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을 이끌기보다는 그저 소리를 낸다.

△소통하는 설교자가 가슴이 아닌, 머리에 설교하고, 설교하기보다는 가르친다.

△성도는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관계를 맺기보다는 어떤 행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짜다 모인다.

△초월한 생각보다는 머물러 있는 데 더 초점을 맞춘다.

왜 그럴까?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두 가지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여기 요약했듯이 입구가 바뀌었다. 인기 있는 교회의 특성은 누군가 교회에 첫 발을 디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정말로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거의 모두가 인터넷을 먼저 본 적이 있다. 혹시 지금 교회에 인터넷 예배가 없다 하더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예배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거나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인터넷 예배가 있으면, 더 깊게 더 빠르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학생처럼 깊게는 아니지만, 진짜인지 알고 싶기 때문에 진짜인지 알 만큼의 깊이를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둘째, 청년들이 깊은 관계와 초월성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소음과 분노의 불협화음과 같은 세상에서, 손가락만 움직이면 언제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청년들은 그들을 넘어 어떤 것, 그 누군가를 찾고 있다. 또한 줄어들 수 없고, 전혀 설명되지 않으며 말로 한정할 수 없는 경험을 찾고 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다.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보다 크시다.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크시다.

그러나 전체 관찰 일화를 통해 이 동향을 더 깊게 생각하게 됐다. 2018년에 사람들이 크리스마스트리를 훨씬 더 일찍 세운 것 같다는 것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됐다.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세운 것이다. 더 깊게 파보며,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런 행동을 보인 사람들이 거의 35세 이하였다는 것이다.

전적으로 추측이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점점 불안정하고 타락해져가는 세상에서 청년들에게 크리스마스트리와 빛과 장식은 경이로움과 평안함 그리고 안정감을 떠오르게 한다. 아련해 보이기도 하고, 대담한 선포이기도 하고, 또는 약간 둘 다인 경우로, 현명한 지도자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조금 더 그렇게 보일 수 있게 만들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불확실한 시대에 교회가 경이로움과 평안함, 안정감을 줄 수 없다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어느 쪽이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문화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다. 이것은 오늘날의 언론에서 들을 수 있는 절망감과 다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두는 현재 정말 인기 있는 교회에게는 큰 기회다. 이것은 갑자기 접근하기 어렵거나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한 것들이 아니다. 말투와 표현, 집



중의 변화는 모두에게 경험을 재조명할 수 있다. 목표가 특이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에 있는 것이다.

2. 인터넷 예배는 뒷문이 아니라, 정문과 측문으로 진화할 것이다.

교회 '인터넷 예배'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로라 터너(Laura Turner)는 뉴욕타임스에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썼고, 인터넷 예배는 실제 예배와는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로라 터너는 이 블로그를 인용해서 로라 터너의 글에 관해 이메일을 통해 짧지만 굉장한 이야기를 나눴다. 필자는 대부분 로라 터너에게 동의하고 지역 교회 지도자로서 정말로 그 관점을 이해한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자주 우리의 대화가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이 인터넷 예배의 논의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예배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지혜롭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다. 그저 구색만 갖춘 것이기도 하고 훌륭하기도 하다.

필자가 생각할 때 인터넷 예배는 미래에 적용된다. 가까운 미래에 인터넷 예배는 거의 전적으로, 뒷문이 아니라 정문과 측문이 될 것이다.

인터넷 예배의 초기에서는, 인터넷은 뒷문의 기능을 했다. 소비자 중심이고, 단절되거나 게으른 기독교인이 뒷문을

통해 따뜻한 침대의 안락함과 러닝머신이나 교통의 편리함을, 운전과 교통체증에서 오는 시달림과 바꿨다. 교회를 향한 기본 마음가짐이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인터넷 예배는 실제 예배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된다.

그러나 이런 기독교인은 멸종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인터넷 예배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고, 빠르게 그 배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지만, 정직하게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것들이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를 오직 이 어폰오로만 맺는다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집단은 이미 헌신자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이 됐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에게 교회의 미래를 세울 수 없다. 전도는 참여의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뒷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흘러가는 사람들이다. 예배만 드리고 절대 헌신하지 않는 평범한 관찰자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미래는 없기 때문에 그 길에서 멀리 떨어지기를 바란다.

인터넷 예배의 미래는 뒷문 인터넷에 있지 않는다. 교회의 미래는 정문과 측문의 인터넷에 있다.

인터넷 예배는 호기심이 있고, 회의적이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문이 될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첫 정거장이 될 것이고, 조금은 두려워서 실제 참석까지 뛰어들 용기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시 휴식 장소가 될 것이다.

필자가 섬기는 커넥서스(Connexus)교회에서 발견하고 되는 것은 처음 출석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몇 주나, 몇 달, 혹은 일 년 넘게 인터넷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문을 통과하여 인터넷 예배를 드린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다.

인터넷 예배는 또한 특정 주일에 여행을 가거나 참석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측문이 된다. 이런 점에서 측문은 사람들과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참여를 고취시킨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변화과정 때문에 이들은 주일이나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에 관한 글은 여기를 보면 된다.

그러나 잠깐, '직접 예배를 드리러 돌아오지 않으면 어찌지?'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때는 측문이나 정문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인터넷 예배를 뒷문으로 드리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보아왔던 거기에는 미래가 없다.

3. 교회와 단체는 실제처럼 인터넷 예배에 사람을 배치할 것이다.

(12면으로 계속)

[정정] 1719호 1면 지면안내에 게재된 3면 시론 필자가 '김인환 목사'였으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시론

나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보네!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앞을 보지 못하는 학생이 휠체어를 밟고 휠체어에 앉은 학생이 따뜻한 목소리로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도착한 강의실에서 휠체어에 앉은 학생이 열심히 강의를 필기하고 나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학생에게 다시 들려주면서 점자로 정리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휠체어에 앉은 학생이 도저히 꺼낼 수 없는 높은 책장 위의 책을 앞을 보지 못하는 학생이 찾아 가져다주면 휠체어에 앉은 학생이 소리내어 읽으며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15학년 '김하은, 설진희' 학생입니다. 같은 기숙사 룸메이트인 두 사람은 서로의 눈과 발이 되어주며 지난 4년간 공부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김하은 학생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 그림이나 도표가 나오면 설진희 학생이 직접 말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탄 설진희 학생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책과 물건들을 김하은 학생이 대신 꺼내주고 도서관과 강의실을 가는 길의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두 사람은 '2019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각각 서울과 울산 지역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앞으로 몸과 마음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인터넷 퍼온 글).

이 두 자매의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격려와 배려가 참 놀랍습니다.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려는 사람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학대하며 마치 그들이 화풀이 대상인 듯 막 대하는 사람들 등등이 난무한 사회에서 이런 훌륭한 젊은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아직 세상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아이를 만나주소서', '제자는 행동한다.' '팬인가, 제자인가'의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의 한 부부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과 노인들을 섬기기 위해 파티를 계획합니다. 직접 정성이 담긴 예쁜 초청장을 만들어 일일이 찾아가 전해주었습니다. 파티 당일 감사하게도 초청장을 전해준 모든 분들이 오셨습니다. 작은 집 마당에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웃고 노래를 부르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맞은편에는 아주 싼 값에 묵을 수 있는 작은 여관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여관의 발코니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집 주인 부인이 마주했습니다. 그 부인은 그들의 시선에서 부러움에 가득 찬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뭔가 도전과 충격이 동시에 교차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느낀 그녀는 자기 남편과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 파티를 계획합니다. 부부는 성탄절 트리, 선물, 음식 등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게임 기구도 설치했습니다. 여관에 찾아가 일일이 초청장을 각 방마다 넣어 드렸습니다. 성탄절 당일 그 여관에서 많은 분들이 이 집으로 건너와 오랜만에 정말 기쁘게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중에는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타운에서 얻어준 방에서 지내는 홈리스 가족들, 수년째 홀로 방 안에서 갇혀 답답하게 지내는 노인들, 갓난 애기 하나 돌리려고 가솔한 부인, 사업에 실패하여 좌절과 절망에 곧 생을 마감하려 했던 사람 등등 다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장면이 이상하리만큼 선명히 그리고 감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말씀 듣고 실천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한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간 상급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4면으로 계속)



남가주한인목사회

삼일절 100주년 기념행사 안내

28독립선언기념 조찬기도회

일시 : 2월 8일(금) 7:30 AM

장소 : 뉴서울 호텔

설교 : 광건섭 목사 (예은교회)

축도 : 한기형 목사 (교협 회장)

대회사 : 김관진 목사 (목사회 회장)

만세삼창 : 권영신 이사장 (한국인민교회)

남가주한인목사회의 사역과 활동을 후원하시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도네이션 해주세요.

pay to order : SCKMA

삼일절 100주년 기념 연합예배

일시 : 3월 3일(주일) 4:00 PM

장소 : 남가주 새누리 교회(박성근 목사사무) 구 성전 975 S. Berendo St. L.A., CA 90006

설교 : 피종진 목사 (남서울중앙교회)

축도 : 한기형 목사 (남가주교협 회장)

대회사 : 김관진 목사 (남가주목사회 회장)

기념사 : 권영신 장로 (한국인민교회 이사장)

축사 : 송정명 목사 (남가주성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격려사 : 김영균 회장 (남가주장로협의회)



설교 피종진 목사, 대회사 김관진 목사, 축사 송정명 목사

찬양 : 남가주 목사 장로 부부 합창단 / 남가주 장로 성가단

리들리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

■ 집결 안내

일시 : 3월 4일(월) 8:00 AM (정시출발)

장소 : 세계 아가페 선교 교회 933 S Lake St. L.A., CA 90006

■ 방문행사

- 예배
- 기념식
- 삼일독립만세 재현 퍼레이드

■ 참가문의 및 접수

김관진 회장 T.(213) 321-6019

박세헌 부회장 T.(323) 404-3147

강태광 총무 T.(323) 578-7933



남가주한인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회장 : 김관진 목사 T.(213) 321-6019
총무 : 강태광 목사 T.(323) 578-7933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그림 같은 예쁜 목장에서...

한창 교회의 목장이 무르익던 시절에 각 목장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했을 때마다, '우리 부부는 목장 기다리는 기쁨으로 살아요. 목장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뤄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 목자님이 기도해 주시는 대로 다 이뤄졌어요. 우린 이 교회에 온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어요! 빛보다 우리 목자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늘 쟁겨 전화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 힘이 납

니다!' 자기 목자 칭찬에 담긴 목사도 안중에 없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변을 토하는 목원들의 순수함을 보면서 목사의 마음이 참 따뜻했었다.

또 다른 목장의 풍경이다. '목사님! 내 평생 이런 생일 축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꽃다발도 몇 개를 받았는지 몰라요! 집집마다 선물을 갖고 와서 목자라고 생일 축하송을 불러주는데 정말 몸 둘 바를...' 목원들 칭찬을 듣고 있자니 이속 좁은 목사 은근히 시샘이 끓어올랐다. 그래도 기분은 참 좋았다. 그래! 바로 이런 목장이야!

난 소년 시절에 아지랑이 피워 오르는 푸른 초원의 목장 꿈을 자주 꾸곤 했다. 파란 하늘 뭉게 구름 아래 싱싱하게 하늘로 치솟은 포플러 울타리 안으로, 한없이 펼쳐진 초원 위에 한가롭게 풀 뜯는 소떼들과 토실토실한 양떼들... 잔잔한 연못에 엄마랑 한가로이 물장난하는 아기 오리들... 맨 날

봐도 자기 식구 아니라고 마구 달려와 덤비는 파수꾼 거위, 꼬리 흔들며 날쌔게 달려와 반기는 세파트는 든든한 보디가 드였다.

세월이 흐른 뒤 주님은 나에게 색다른 목장의 꿈을 주셨다. 신학 훈련 마치고 강도사가 되었다. 서울 잠실 결석촌 호수가 부근에 첫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목사 임직을 받은 바로 다음 첫 날 새벽이었다. 무릎 꿇고 엎드린 잠잠한 강단에 갑자기 눈부신 목장풍경이 펼쳐졌다. 어린 시절 꿈에 동경하던 바로 그 목장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푸른 초장에 끝없이 넘실대는 소떼들과 토실토실한 양떼들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다. 목회 길 사양하고 뱅뱅 돌다 뒤늦게 돌아온 나에게 "김 목사야!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부끄럽고 죄스러워 침묵하는 나에게 주님은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오! 주님, 이 그림 같은 아름다운 목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부르심! 이 감사의 눈물. 성령의 강물 따라 끝없이 뻗어 가게 하옵소서!' 39세의 어린 청년은 한없는 감사의 눈물을 감감한 강단에 쏟아내고 있었다. 시간의 구름들은 나를 송파를 떠나 드넓은 풍아일랜드 뉴욕 사만타 말 목장으로 이끄셨다.

오늘따라 훈풍까지 불어오는 포근한 오후. 목양실 창문 너머 넘실대는 오리 떼들이 나를 불러 들레 길로 나섰다. 고즈넉한 산책길에 바스락 바스락 소리 내는 대나무 숲길을 걷는다. 상록수 싱싱한 전나무 길을 지나 아늑한 언덕 위에 몰래 숨어 사랑하다 들킨 오리 한 쌍이 허겁지겁 날개 치며 도망한다.

아직은 겨울, 가벼운 옷차림으로 들레 길을 따라 주님과 산책길을 나섰다. 35년 전 보여주셨던 목장의 꿈이 눈앞에 있음을 보며 또 다시 감격했

다. 주님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목장을 같은 목장송파의 지하실을 떠나 30년의 시간을 따라 토론토를 거쳐서 풍아일랜드 뉴욕 사만타 목장에 터를 잡으셨네요. 그리고 사람으로는 이를 수 없는 거대한 주님의 목장을 주께서 일구셨네요...

참 나의 목자장 되신 주님! 끝까지 풍요로운 목장 만들어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양무리 잘 섬기는 꿈은 비단 나 한사람만의 꿈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목양의 꿈입니다. 이제 곧 서서히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주님의 그림 같은 목장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오늘도 갈망한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잠27:23).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이지훈 목사

(아르헨티나 열린우리교회)



영어로 hostility입니다. 적대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인간들에게 없는 의로움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예수님을 환영해야 할 유대의 왕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오히려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을 속이는 자라고 비난했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 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내 행위로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날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확증해주시는 것

하고 교회 가서 또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아직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영적으로 탈진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또 다시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힘입고 또 다시 세상의 유희와, 자신의 죄성과 맞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예배는 회개를 통한 영혼의 안식을 얻는 날이며,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또 한 주간을 살아낼 영적 충전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시험에서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의 오후나 날 향한 이유 없는 비난이나 조롱을 받을 때, 날 잘 알지도 모르면서 이런 저런 평가를 하고 반대하고 적대하는 것을 당할 때, 그 괴로움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21장 13절을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갖고 있어야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을 때, 사탄은 자신이 이긴 것으로 알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와 세상에서 경쟁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면, 세상은 우리가 졌다고 조롱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겼다고 손을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고 지치고 맘 상했을 때, 죄인들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참으시며 고난을 당하셨지만 마침내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미치는 오늘의 고난과 징계를 견뎌냅니다. 우리 모두 마침내 이 영적 싸움의 최후 승리가 될 것을 믿으면서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yedam0506@gmail.com

믿음-탈진을 이기는 능력

(히브리서 12장 3-5절)

신자는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신자가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믿음의 founder, 곧 '설립자'이시고, 또한 믿음의 perfecter, 곧 '완성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길을 배우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들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시험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위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곤하여 낙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보면 누구나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 이런 수고를 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했던 사역이었는데 전과 달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BURN OUT, 영적 탈진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적 탈진상태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니다.

첫째, 왜 이처럼 영적으로 탈진하는 상태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먼저는 영적 전쟁을 육신의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지쳐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적인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순종을 하기 때문에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몸과 마음이 지쳐서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면 영양제 주사를 놔준다거나 영양식을 먹고 꼭 쉬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에서는 좀 쉬어도 된다는 허락이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탈진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멈춰도 된다는 허락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지쳐죽겠는데도 계속해서 봉사나 사역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일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경주는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지치면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멈추는 순간 사탄의 밥이 되기 때문이며,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까지 낙담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율법적인 순종과 복음적인 순종이 어떻게 다른가?

율법적인 순종은 우리가 거

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행하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나 반대급부가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 받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이 구제

하고 봉사하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를 얻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더 복 받고 더 칭찬과 영광을 받겠구나!" 그래서 더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면서 자기 의를 증명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탈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복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만일 누군가 그 사람의 희생과 수고를 몰라주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그걸 견뎌내지 못합니다. 알아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지치고 상처받고 낙담해서 하기 싫어 집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앉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되기 쉽습니다.

셋째, 그렇다면 복음적인 순종이 무엇일까요?

복음적인 순종의 비밀이 3절에 나옵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곧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역'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순종하지 않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거역'이라는 단어 ἀντιλογία는

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귀신들린 자를 치료하셨을 때는 귀신의 왕이라고 모함했고 성경에 대해서 탁월하게 해석하셨을 때는 그 래봤자 목수의 아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낙인찍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온갖 조롱과 모욕과 거짓과 핍박에 시달리시면서도 끝까지 참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자기를 배신하고 대적한 모든 자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말씀 안에는 그 모든 대적자들의 악한 죄악을 다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자신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침 뱉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박는 모든 죄인들을 참으시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순종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어떻게 복음적인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드러나고 칭송받는 일에는 지갑을 정말 아끼없이 열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랑의 나눔에는 인색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부부는 그냥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내리놓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

기가 가진 것들을 주님의 손 안에 놓여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기들이 한 사랑의 나눔과 섬김보다 더 큰 보상을 받았 습니다. 바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요 가치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나

를 버리고 내려놓는 기간입니다. 올해는 나의 가진 것들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는 사랑의 나눔과 실천이, 격려와 배려가 가득한 "나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어떻게요? "세상은 나를 통해 예수를 봅니다."

pastor.eun@gmail.com

(3면에서 계속)

말씀 따로 생활 따로,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등등의 종교혼합주의, 편의주의적 신앙이 만연한 작금에, 그래도 말씀 듣고 실천해보려고 했던 이들 부부가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과 생활

이 둘이 완전히 겹쳐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간절함'은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는 '안타까움'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의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

로 이 부부가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또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드러야만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이름 나고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신앙의 자유 보호 위한 역사적 행동'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국정연설에서 '생명과 신앙의 자유'를 강조한 것에 이어, 이를 뒤인 목요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다시 한 번 '생명과 신앙의 자유'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며 강조하기를, "미국에서 신앙(기독교)은 미국의 중심이자 핵심이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은 말뿐이 아닌 실제로 신앙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들에 가까이 뛰어들고 있으며 그런 그의 책임 있는 행동은 지난 2년간 거듭 검증되어왔습니다.

나와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콜롬비아 특별구 등의 주에서 소송에 직면한 기독교 입양기관들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오랜 자랑스러운 전통인 신앙에 기반을 둔 입장을 항상 지켜낼 것이며우리 정부는 신앙에 기반을 둔 입양기관들이 자신들이 깊이 간직하고 있는 믿음들을 따르면서 취약한 아이들이 영구적인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는데 두 사람 모두 교도소에서 엄청난 전도로 많은 전과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앙 지도자들은 역사적인 초당적 형사사법 개혁을 이뤄내는 데 큰 도움을 줬다. 미국은 속죄를 믿는 나라다. 지금 이 방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매일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1.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이고 신앙에 기반"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권고안을 작성하기 위한 신앙위원회를 만들라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명명했습니다. 이 신앙위원회는 "백악관 신앙자문위원회 및 기회 구상 수립"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되며 미국 역사적으로 그랬듯이 크리스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됐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전 국정연설에서, "태어난 아이든, 태어날 아이든 모든



대조되는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신앙 자문 위원회" 임명!

2016년 오바마 전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백악관 신앙 및 자문 의회"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Barbara Satin(82세)을 책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이름까지 남성이름에서 여성이름으로 바꾼 그는 매우 활발한 동성애, 성전환자 운동가로서 Church of United Methodist(감리교) 소속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형상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해서 기립박수를 받았는데, 조찬기도회에서도 "모든 생명은 신성하고 천국으로부터 온 소중한 선물이다"라며 말기 "낙태에 대한 규제"를 의회가 통과시키도록 기도 요청했습니다.

"말기 낙태" 제안은 민주당 소속인 앤드류 쿠오모(NY) 주지사와 버지니아 주지사 Ralph Northam가 통과 및 제출했고 반기독교 좌파 주정부들이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7. 이날 청중 속에는 지난해 말 터키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 풀려난 미국인 목사 Andrew Brunson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브룬슨 목사는 자신이 터키에 억류되어 있는 와중에 결혼한 딸의 예식에 참석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 브룬슨 목사님이 딸을 데리고 통로를 걸어 나갈 것"이라고 소개하며,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나도 초대를 받았나요?" 라는 농담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Little Sisters of the Poor'와 같은 신앙에 기반을 둔 단체들의 고용주가 직원들의 피임약과 낙태를 유도하는 약값까지 지불케 하는 "오바마케어 명령"에 더 이상 강요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바마 행정부 때는 "정부 vs 하나님"이라는 강요된 선택에서 단일 성경적 원칙을 따른다면 엄청난 벌금과 대가를 치러야 위협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었는데, 현 트럼프 정부가 그런 오바마 시절의 기독교에 대한 역사적 법안들을 또 한번 폐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6. 제 1단계 법안(First Step Act)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은 비폭력 수감자들을 신앙으로 회복시켜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형사사법개혁법인 제 1단계 법안(First Step Act)의 통과를 도운 신앙 지도자들에게 공로를 돌렸습니다. 지난 국정연설 때 두 사람을 소개한 바 있

글을 마치며...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수행한 이후로 그는 수십년간 그 어떤 대통령들보다도 "신앙의 자유 -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실질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행정 명령과 법안들, 그리고 공공연한 그의 '신앙의 자유 보호'에 대한 강조를 통해 미국의 모든 이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 미국을 사회공산주의로 가져가려는,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반기독교 정치인들과 그들과 손을 잡은 주류미디어, 언론들에게는 엄청난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 행정부를 무너뜨리고자 엄청난 모함들과 조작된 거짓 스캔들과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돕고 있는 모든 행정부 리더들과 트럼프대통령에게 신앙으로 멘토해 주는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어느 교회 예배에 참여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데 이것이 옳은 기독교 용어인지요? 그리고 장례식에서 어떤 목회자가 교인의 명복을 빌면서, 라고 하는 데 이것이 올바른 기독교 용어인지요?
-토렌스에서 이희은

A: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3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은 기도하는 사람이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는 용어는 아주 잘못된 기도 용어입니다. 기도자가 아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는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거두어 달라는 그 용어 자체는 어떤 인간에게 돌아가는 영광은 뺏으 시라는 것인데 사실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인간이나 단체는 "이가뵈"이 됩니다. 이가뵈는 영광이 떠났다는 용어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내용입니다(삼상4:21).

그러므로 예배에나 어떤 인간이나 단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라는 말은 합당치 않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돌아가게

기도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명복' 이란 말은 불교용어

하옵소서" 라고 바꾸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인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라는 말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이란 말은 대체로 예수님을 말하는 단어이지만 이단인 통일교나 전도관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주님은 문선명이고 박태선입니다. 그들의 주님은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는 기도자는 확실하게 명칭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받든다는 말은 어떤 이름이나 대의에 보조를 맞추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용어가 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옳습니다.

셋째 질문은 장례식에서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 용어이므로 절대로 기독교인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장례식을 인도할 때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목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주 잘못된 용어입니다. 명복(冥福)은 불교에서 온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명부(冥府)라고 합니다. 명부에는 사후세계를 다스리는 염라대왕이 있고 죽은 사람은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는데 '명복을 빌니다' 라는 기원은 죽어 염라대왕의 자비로 극락에 가게 해달라는 기원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내세관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7639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해 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 오후 1:45 EY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 위,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왕찬양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위,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9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8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새벽기도: 오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41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5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el: (804)560-7500, www.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 오전 2:00 청년예배: 오후 7:45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04 ■ N.Y.: Tel. (718)886-4444 Fax. (718)886-0001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파키스탄의 하자라(HAZARA)



하자라 족은 주로 아프가니스탄의 중부에 살고 있으며 이란과 파키스탄에도 많이 살고 있다. 파키스탄의 하자라 인들은 대부분 발루치스탄 주의 남서쪽에 위치한 퀘타(Quetta)시 주변에 살고 있다. 하자라인들은 몽골인들의 후예로 생각된다.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징기스칸(Genghis Khan)의 침략 때 병사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졌다. 이들은 몽골인 같은 신

제적 특징과 언어로 인해 이 지역의 다른 종족들과는 다른, 독특한 종족집단으로 구별되어져 왔다. 하자라기어(Hazaragi)라고 불리는 이들의 언어는 인도-이란 계통의 언어이며 몽골어의 단어를 많이 차용해 사용한다. 많은 하자라인들이 제2의 언어로 다리 페르시아어(Dari Persian)를 사용한다. 이들의 본토인 아프가니스탄은 내전과 반란으로 혼란했다. 1800년대 반란이 실패한 후 일부 하자라인들은 파키스탄으로 도망 와서 정착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내전을 피해 도망 온 다른 하자라인들이 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삶의 모습

전통적으로 하자라인들은 양, 염소, 말들을 키우는 유목민들이다. 오늘날은 혼합목물재배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주요 작물은 밀과 보리이고 다양한 과일도 재배한다. 남자들의 많은 수가 구두수선공, 집꾼, 물을 나르는 사람 혹은 농마주이로 일을 한다. 천한 일도 기꺼이 하는 이들의 자세는 자신들에게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이들이 차별대우 받고 경멸을 받기도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좋게 평가되기도 한다.

하자라인 남자들은 험령한 바지에 어울리는 무릎까지 늘어진 면 셔츠를 입으며 수놓은 둥근 모자나 터번을 쓴다. 여자들은 거의 비슷한 옷을 입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밝은 색의 숄(shawl)로 그들의

머리를 가린다는 것이다.

하자라인의 결혼식은 전통 이슬람 형식을 따른다. 대부분이 그들 공동체 내에서, 거의 언제나 하자라인들끼리만 결혼한다. 친사촌 간의 결혼이 선호되고 있다. 여자의 경우 보통 15살에 이르면 부모가 선택한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

오직 남자 아이들에게만 정식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또한 겨우 1년 혹은 2년에 불과하다. 교육의 중심은 이슬람에 관한 것이며 시 압송이 교육의 대부분이다. 결국 하자라인들의 문맹율은 상당히 높다.

비록 사냥과 호전적인 민족이란 악평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친절과 상냥함, 관대함 또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자라 여인들은 다른 무슬림 집단에서보다 많은 사회적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신앙

정통 수니파 이슬람을 따르는 다수의 파키스탄인과는 달리, 하자라인들은 시아파 이슬람(Shi'ite Islam)을 따른다. 따라서 가장 엄격한 무슬림 관습은 피하지만 라마단(람잔)기간의 금식과 메카를 향해 하루 다섯 번의 기도하는 것 등의 신앙에는 헌신적이다.

사이드(Sayyids, 유목민의 장로, 모하메드의 직계자손에 대한 존칭)라고 불리는 종교 권위자들은 하자라인들의 이슬람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한다. 사이드들은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의 후예들임을 주장한다. 원래 그들은 아랍인들이나, 파키스탄의 사이드들은 하자라인들과의 통혼으로 신체적인 외형과 문화에 있어서 하자라인들과 비슷하게 됐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의 종교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신성한 자질(sacred

qualities)을 사용하며 그들의 기도와 종애는 축복을 가져온다고 믿어진다.

필요한 것들

하자라인들은 다른 종족 집단들에 의해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이들은 파키스탄에서 가장 가난한 종족이며 눈병, 문둥병, 결핵이 만연해 건강상의 많은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파키스탄의 하자라인들에게 상당한 영적인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 박해의 위협 가운데, 심지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순교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 성경과 "예수" 영화도 하자라기어로 번역되었지만, 다만 이들의 언어로 된 라디오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교회가 운영하는 프리스쿨에선...

13일 버지니아 주 팰스처치에 위치한 콜롬비아침례교회, 평일에도 1-5세 어린이 370명의 웃음소리가 교회 안에 가득했다. 버지니아 주에서 가장 큰 프리스쿨인 이곳은 80명의 교사가 다양한 문화권에서 자란 어린이들을 돌본다. 프리스쿨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돌보는 기관으로 한국으로 따지면 어린이집과 유사하다.



19개의 교실은 가정, 일터 등 주제별로 구성돼 있었다. 어린이들은 활활만지기, 나무 블록쌓기, 종이상자에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주로 놀이 위주 교육이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캐서린 레함(3)양이 "누군가 여기 왔어요"라고 소리쳤다. 한국의 신문사 기자라고 하니 부끄러운 표정을 짓더니 친구들에게 달려가 나무로 된 건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곳은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개발한 '레지오 패밀리(legio familia)'라는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놀이활동을 하면서 창의성과 지혜를 배우도록 한다는 목적이 있다. 일례로 진흙 놀이를 하면서 수학 과학 예술 및 성경적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전수한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1일 1회 반드시 야외활동을 하며 이것만 전담하는 전문 코치도 있다.

월 교육비는 1250달러로 1500-1600달러인 일반 프리스쿨보다 저렴하다. 이곳 맞벌이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5만-20만 달러 수준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성경적 교육이 가능하다. 교회는 50년 전부터 이 사역을 하고 있으며, 유년시절 교육혜택을 받은 부모가 자녀를 보내는 경우도 많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호텔주방장 출신의 요리사를 프리스쿨에 투입했다.

프리스쿨을 포함해 교회의 가정사역 전반을 총괄하는 로라 그레비씨는 "지역 맞벌이 부모들의 제일 큰 관심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 프리스쿨은 어디에 보낼 것인가 하는데 있다"면서 "교회가 양질의 음식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사회 부모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어린이 중 60-70%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구의 자녀인데, 얼마 전 무슬림 학부모가 상담하면서 '종교는 상관없고 교육의 질이 중요하다'고 말하더라"면서 "프리스쿨과 교회의 벽을 낮춰 교회의 모든 서비스를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곳에 오는 순간부터 부모들은 교회의 가족이 된다"고 귀띔했다.

미 정치 · 종교 분리 갈등 재점화

폭스방송 뉴스쇼 폭스앤프렌즈는 지난달 28일 '성경 문맹퇴치 수업 법안(Bible literacy class bill)'을 통과시키려는 노스다코타주 하원의원 에런 맥월리엄스의 인터뷰를 방영했다. 이 법안은 공립학교에서 선택과목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것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이 응원하는 트윗을 날려 공립학교에서의 성경 수업이 다시 한번 집중 조명되기도 했다.

에리조나·아칸소·조지아·켄터키·오클라호마·테네시·텍사스주 공립학교에선 학생들이 성경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앨라배마·아이오와·웨스트버지니아주에선 이 같은 법안이 의회에서 부결됐지만 올해 노스다코타·미주리·인디애나·웨스트버지니아·플로리다주 상·하원에 법안이 발의 중이다. 또 버지니아주 상원은 이날 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주는 대부분 남부 보수 복음주의의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의지하고 있는 지지층이기도 하다.

법안들은 미국 정치에서 가장 오래된 논란 가운데 하나인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갈등을 다시 불러오는 듯하다. 맥월리엄스 의원처럼 입법을 추진하는 측은 "기독교와 성경의 영향을 빼고 미국 역사를 논할 수 없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려하는 측은 "실제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학생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크다"고 맞섰다.

지난달 31일 헤테 아발로스 아이오와주립대 교수를 포함한 아이오와 소재 대학의 성서학자 세 명은 아이오와주 하원 발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안 내용이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중립적인 것 같지만 실제 성경 수업이 진행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성서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경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나 신앙을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1787년 헌법 제정 후 10가지 조항을 추가해 1791년 첫 번째 개헌을 했다. 이때 추가된 부분이 시민의 권리에 관련된 내용이라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 부르는데, 이 수정 헌법 제1조가 종교·언론·출판의 자유, 집회·청원의 권리에 관한 것이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부분이 최우선이다. 의회가 국교를 설립해도 안 되며(Establishment Clause), 종교활동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Free Exercise Clause)는 두 구절의 공존이 바로 미국 정교 분리 갈등의 시작이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는 게 간단치 않다.

미국의 학교들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어떤 성경을 읽고 어떻게 기도 드릴지를 둘러싼 가톨릭과 개신교 간 갈등으로 1844년 필라델피아에서 개신교도들이 가톨릭 성당에 불을 지르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20세기 들어서는 생물 수업에 진화론을 포함하는 것을 놓고 진보와 보수 개신교가 나뉘었다. 그런데 1940년대를 지나며 대법원이 수정헌법 제1조의 두 구절을 연방정부에서 더 들어가 주 단위까지 적용하는 판결들을 내리며 논란이 불거졌다. 공립학교에서 기도가 위헌이라는 1962년 판결, 종교와 도덕 지도를 위한 성경 읽기가 위헌이라는 1963년 판결 등에 이어 고등학교 미식축구 경기에서 기도가 위헌이라는 2000년 판결에 이르러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트럼프 "완전한 비핵화 기회...김정은과 견해 일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누구도 서두르게 하고 싶지 않다"며 "(핵)실험이 없는 한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전 미주지사 연회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를 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total denuclearization) 기회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에 대해선 "매우 매우 좋은 관계이며, 견해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은 우리가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냐고 묻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포기한 것이 없다. 제재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내놓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서 제재 완화 카드를 내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은 경제적으로 활기찬 나라를 만들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서 "핵을 보유하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김 위원장에게 말했다"며 자신이 북한에 '기회'를 주는 것임을 강조했다.

낙관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세 번째 정상회담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CNN방송에 출연해 "북핵 위협이 여전히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피주기 협상' 논란을 인식한 듯 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신중론을 유지해 왔다. 그는 한국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미국 요구의 60% 해체에만 합의해도 운이 좋은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서도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비핵화에 대해 예상보다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위앙스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세 번째 정상회담이 추진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 주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발언은 모호한 결과를 내뿜던 싱가포르 1차 회담과 비교했을 때 이번엔 실질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내놔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실제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행했을 경우에만 북한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고 NYT는 전했다.

김정은, 대미외교 반대 엘리트 50-70명 숙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대미 외교와 대남 외교에 반대하는 엘리트들을 대규모 숙청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 보도했다.



탈북민 단체인 북한전략센터가 전현직 북한 고위 관리 20명을 인터뷰한 뒤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북한의 엘리트 50-70명을 숙청한 뒤 재산을 몰수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으로 부를 쌓은 고위 간부들이 주요 숙청 대상이 됐다고 WSJ는 지적했다.

한 전직 북한 고위 관리는 북한이 체제 안정을 위해 총성파의 부패를 어느 정도 용인하던 때도 있었지만 대북 제재로 전통적 외화벌이 수단이 막히자 숙청 후 재산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재정을 보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말부터 집중된 이번 숙청으로 수백만 달러를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번 숙청은 일부 반대파를 억누르는 동시에 정권의 재정을 강화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건드리지 못했던 북한 호위사령부도 숙청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위사령부 고위 간부들이 지난해 수만 달러의 비자금을 마련했다 적발돼 숙청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호위사령부 숙청 이후 올해 신년사에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성렬 전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도 미국을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숙청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한 전 부상은 2013년까지 미 국무부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대화 창구인 뉴욕 채널을 담당했다. 미국도 그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북한 매체에 등장한 이후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북한에선 한 전 부상 외에도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망명파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 대리의 실종 등 사고가 잇따랐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김형철 국무위 대미특별대표 등 신진급 외교관들이 북·미 협상의 전면에 섰다. 김 위원장이 대미 외교에서 기존 외교관들에게 신뢰를 거두고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어게인 2016" 샌더스, 대권 또 도전장

2016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77살의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사)인 상원의원이 19일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해 말 엘리자베스 워런(69·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는 샌더스 의원까지 후보자만 12명에 달한다. 역시 70대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 다른 유력 후보자들도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여 민주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는 연초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왼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날 버넌트 공영라디오 인터뷰, 지지자에 대한 이메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2016년 대선에서 정치혁명을 시작했고, 이제 그 혁명을 완성할 때가 왔다. 3년 전 우리의 진보적 어젠다에 대해 급진적이고 극단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은 미국인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병적인 거짓말쟁이에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 동성애 혐오자, 외국인 혐오자"라고 비난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미국을 전체주의적으로 이끄는 대통령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처음에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보편적 건강보험제도, 공립대학 등록금 폐지, 최저임금 15달러 등의 정책이 젊은층과 서민층에게 큰 호응을 받으면서 힐러리 클린턴과 막상막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었다. 당시 소액 기부로 2억280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샌더스의 의원이 이번에 "전례 없는 풀뿌리 운동으로 나를 지지해 달라"고 밝힌 뒤 12시간도 안돼 15만명이 넘는 지지자들로부터 330만 달러(약 34억원)가 모였다고 MSNBC가 전했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68. 이인신(1879-?)

이인신은 1879년 서울 수정동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는 이성준의 이름으로 1904년 6월 1일 콤포트 선박을 이용하여 하와이로 왔다. 이인신이 '신한민보'를 통해 동포사회에 소개되기는 이름 고치는 광고에서다. 1910년 3월 9일 자의 "이름 고치는 광고"에서 그는 "경계자는 이성준으로 통용하옵더니 자금 위치하여 이인신李忍信으로 행세할 터이니 지구 침군자는 조방하시옵소서"라고 썼다. 참을 견어 믿을 믿음 바뀐 새 이름은 그가 참아 하나님께 믿음 직스럽게 살아가겠다는 결심으로 보인다.

1907년에 메리 스트웰트 부인이 조직한 남가주 윌랜드 한인장로교회의 1910년경의 교인 명단에 그의 새로운 이름인 이인신이 보인다. 스트웰트 부인은 한인 동포의 어머니로 잘 알려진 부인으로 윌랜드제일장로교회 교인이었고 이 지역의 농장주인이었는데, 위의 33명의 한인 동포가 자신의 농장에서 노동하였다. 1913년에 이인신이 남가주 클레몬트 국민회 총무가 되었으나 사업상 거리가 있어 사임하였지만 아경 동지 구조금, 클레몬트 학생양성소 겸 예배당 건축비 등으로 기부에 인색하지 않은 데서 그의 이름 '인신'의 의미를 발견한다.

삭도한인감리교회 전도사

1913년 말에 이인신이 북가주 삭도(새크라멘토)로 이주하였다. 이곳에서도 그는 의무금, 서간도 기항 구휼금 등으로 기부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삭도한인감리교회에 등록했다. 본 교회는 1907년 양주삼의 전도사업으로 교회가 조직되었다.

1917년 11월 29일 하오 7시 30분에 남부 동포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삭도한인감리교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본 교회로서는 최초로 가지는 추수감사절 예배였고 특별히 대 풍작을 얻은 가운데서 뜻있는 예배였다. 이 예배에서 이인신이 사회를 보

았다. 이인신이 개회 취지를 말한 후 김홍균이 기도하고, 이남주 부인이 감사가로 독창한 후 최능익이 연설(설교)을 하였다. 이후 양제희와 김요한이 합창을 하였고, 누군가 또 연설(설교)을 맡았으며, 사덕순이 독창을 하고 예배를 마쳤다. 예배를 드린 후 다과를 나누며 여흥과 연극을 꾸며 매우 재미있는 시간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인신이 1915년 7월 인후병으로 3, 4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차도를 보였는데 2달 후인 9월 22일 밤에 결혼식을 거행했다. 신부는 그달 13일에 도미한 김남조였다. 삭도한인감리교회 예배당에서 이대위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한 후 이인신의 주택에서 성대한 연회를 열었다. 이날 결혼식에 참석한 한인 동포 하객은 6, 70명이나 되었다. 이해 8월 20일에 상항에 도착한 김남조는 당시 20세 생일을 지나고 2달이 되었는데

임정구 전도사가 순회 목사로서 삭도한인감리교회를 목회했다. 삭도 외에도 그는 옥글랜드, 스타튼, 맨타카 그리고 윌로우스에 있는 한인감리교회를 섬겼다. 편의상 교회라고 적지만 기도처라고 함이 정확하다. 삭도한인감리교회의 출석 교인은 70명이었고 이 중 63명이 활동 교인이었다. 임정구 전도사가 삭도한인감리교회를 방문하지 못할 때 이인신은 김홍균과 최능익과 함께 삭도한인감리교회의 예배 등 목회를 감당했다. 그런데 약 1달간 사역한 것 같다.

윌로스 한인 감리교회

이인신은 가족과 함께 윌로스 이주한다. 그는 백신구의 주택에서 길 하나 건너 거주했다. 윌로스 한인 감리교회가 있었으므로 이인신이 행정적으로 전도사로 파송을 받지 못했어도 임정구 전도사가 방문하지 않을 때 예배를 인도하고 교인을 심방했을 것 같다. 그의 목회는



신한민보
1910년 3월 9일



윌랜드한인장로교회 명단
왼쪽 아래서 7번째에서 이인신 이 보인다.

도미 후 1910년 하나님께 믿음직스럽게 살려 이인신으로 개명 1918년 삭도한인감리교회 전도사 임명... 각종 기부활동에 앞장

이인신의 부인 김남조가 아닌가 싶다.

1918년 10월 10일 하오 3시에 북가주 한인 남미 이민교회 지방연회가 상항 피켓저널 예배당에서 소집되었다. 감독 후보사 목사의 사회 하에 이대위 목사의 기도로 정식 연회를 개최했다. 임정구 전도사를 서기로 선임한 후 출석을 점검하니 상항교회의 이대위, 황사선, 김정은, 최진하, 김영훈 그리고 삭도의 임정구와 김홍균 등 7인이 출석하였다. 서류를 낭독한 후 각 교회 보고가 있었다.

이날 이인신은 김홍균과 함께 삭도교회 전도사로 새로 임명을 받았다. 임정구, 황사선, 양주는 그리고 삭도의 최능익은 재임되었고, 그리고 김영훈, 최진하는 상항교회 전도사로, 한치홍은 맨타카 교회 전도사로 새로 임명되었다.

길어도 삭도로 이주하던 1919년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이다. 본 교회는 백인 감리교회에 적을 두고 이인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신한민보를 통하여 비보를 접한다. 이인신의 부인 김남조가 서반아 독감에 걸려 1918년 11월 16일 토요일 새벽 6시에 별세했다. 다음날 주일에 양주는, 백신구, 김찬일, 이무경, 김관유, 서덕순, 김화중, 최능익, 최봉민 등과 김홍균의 농원 대표 이영기 등 동포 10여 명과 백인 남녀 내빈 36명이 백인 감리교회 예배당에서 백인 카터 목사의 주례로 장례식을 거행했다.

기도하고 찬송한 후 발인하고 3대의 자동차와 무수한 생화와 백인 감리교회 부인 찬미대가 호상하여 산상에 이르고 하오 4시 30분에 개인 묘지에 하관하고 안장했다. 하관할 때 백

신구와 위의 한인 동포들이 묘지 땅을 파다는 기록이 있다. 신한민보는 '결혼한 지 4, 5년간(3년간) 가정이 화목한 가운데 어린이들이 있어 한참 재미를 볼만하고 최근 농사를 거두어 마치고 곳은 비 깊은 겨울에 서로 화로를 의지하여 웃으며 명년 경업을 의뢰할 때에 출연한 백년 인연을 유령에 끌렸으니 씨는 응당 중년의 불행을 슬퍼할 지로다'라고 한탄했다. 이번 서반아 감기로 별세한 미주 동포는 원창희 등 남녀 다섯 명이나 되었다.

다음 달인 3월에 대한독립선언 '삼일절' 제2회 축하회로 삭도 여관에서 47명이 모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임동이 국가를 부른 후 이인신이 기도 순서를 맡았다. 그 후 사병순 목사가 취지 설명을 하였으며 김석은이 축하사를 독창했고, 삭도한인감리교회 김홍균 전도사가 연설하였는데 그 제목은 "대한 국민 된 자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였다. 그의 연설 후에는 김석은과 오복수가 찬양했고, 누군가 연설을 하였으며 국가를 일동이 부른 후 김석원과 김지혜가 기도하고 만세를 부른 후 마쳤다.

부인 별세 후 이듬해인 1919년 4월에 이인신은 삭도한인여관 겸 양찬관을 열었다. 주소

신세도 많이 지며 상항까지 와서 병에 걸린 때와 잠자던 때를 빼고는 노동을 하나 많지 못한 월급 생활을 하여 구구한 생명을 보전하며 불쌍한 어린 은총을 공부나 시켜줄 생각으로 백인의 집에 일하다가 법률의 위반이라 하여 이민국에 피착되매 세상에 온 후 처음 당하는 일이다. 비로소 오늘 법을 알고 보니 본국으로 돌아가는 명령을 받을 것밖에 다른 계획이 없는 이 때에 이인신의 생각에는 본국으로 가라 하면 수십여 년에 배운 것도 없이 빈손으로 본국으로 갈 생각이 조금도 없고 금지옥엽 같이 기르던 딸을 영 이별할 생각을 하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이때 열기가 머릿속에 점점 가득하매 눈이 캄캄하여지더라.

고로 돌아가라는 영을 받아 배만 태워주면 결코 깊은 태평양 물속에 있는 고기 배 속에 장삼을 하여 세상에 유통한 것과 괴로운 것을 잊고자 하였더니 뜻밖에 여러 친구의 뜨거운 애정과 의로운 성의가 모여 (이)인신을 실어 내 온 여러분도 무한히 기쁘시시마는 (이)인신의 기쁜 마음은 마치 7년 태만에 감우를 맞본 것과 같고 9년 흉수에 햇빛을 다시 본 것같이 기쁜 나의 중심을 기울여 열심 성의로 도와주시라 여러 형제자매께 무한 감사하며 영원히 잊지 못하겠나이다."

다음 달 그는 스타튼으로 이주했다. 그는 재만 동포 동정금, 삼일 기념품, 인구세, 고 이대위 목사 장비, 내지 수재 구제금 등으로 그를 감옥에서 석방케 한 동포의 은혜를 갚았다. 1929년 4월에 다시 상항으로 이주한 후에도 전명운 부인 장비, 성탄절 때 고아원에 터기 한 마리 기부, 조선 여자대학 기부 등으로 은혜를 갚는 일은 이어졌다.

1931년 10월에는 나성(로스앤젤레스)으로 이주하여 나성한인감리교회에 출석한다. 그는 임정구와 전덕문과 함께 이인신이 서양 식당을 개업하였는데 그 사업이 매우 유망하였다. 이런 가운데 딸 은희가 1936년 7월 5일에 황사선 목사의 주례로 임준기의 차남 피터와 결혼하였으니 이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없었으리라.

이듬해인 1937년에 이인신은 중가주의 다뉴바로 이주했다. 이곳에서도 의무금과 인구세, 임시정부 후원금, 중국 항일전쟁 동정금, 삼일 성금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 갚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1940년 이후 내지 한재 의연, 광복군 후원금, 의무금, 나성 한인 양로원 기부, 맛단사스 구제금, 독립금, 고 한석근 장례 동정, 군사 운동금, 인구세 등으로 은혜 갚는 일은 끝이 없었다. 1945년 그가 리들리를 거쳐 상항으로 이주하더니 이후 그의 발자취를 찾기가 쉽지 않다. damiu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성경회: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시(토)
미주장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예배: 오후 1:20 영어인 (장소:KDC, 킹덤빌딩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기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얼바인침례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5:30(월-금) 주일 학교: 오전 8:00(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어예배: 오후 1:30(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위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100 ■ N.Y.: Tel. (718)886-4000 Fax. (718)886-0100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영양예배: 오후 6:0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오프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5:30(월-토) 생령대회: 오후 7:20(토)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김희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100 ■ N.Y.: Tel. (718)886-4000 Fax. (718)886-010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희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오후 7:0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100 ■ N.Y.: Tel. (718)886-4000 Fax. (718)886-0100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리더십 코멘터리 (82)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Laws of Leadership for Church Innovation

교회는 왜 변화를 거부하는가?

지혜와 영적 능력으로 충만하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리더라면 누구든지 교회의 생명력과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회혁신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많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교회혁신을 시도하지만 여쩠 수 없는 저항과 반대에 직면한다. 현대교회의 변화는 쉽지 않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압력을 받을 때 반대한다고 말한다. 영적리더는 혁신적인 사역에 대해 교인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때 큰 당혹감을 느낀다. 시대의 흐름은 당연히 그 일을 필요로 하는데, 사람들은 왜 그것에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 리더는 여러동절해 하

안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변화의 실마리를 찾는 작업을 해야 한다. 만약 오랫동안 정체가 머무른 교회라면, 정체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왜 그런 정체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경청과 우선순위의 법칙

기업의 혁신을 추구하는 리더들은 고객들과 만나서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며 어떤 가치를 찾고 또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반드시 실행한다. 마찬가지로 교회혁신을 위해서는 교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교회에 대해 어떤 것을 기대하며,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들어보아야 한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영적리더들이 어려운 짐을 혼자 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회혁

야야 한다. 어느 조직이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지 않으면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제자훈련으로 교회를 변화시키겠다고 계획한다면 우선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한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제자훈련의 모델로 소개되는 교회들의 성공사례는 한 사람에게서 일어난 변화가 교회 전체의 혁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한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혁신에 성공하려면 주도권을 잡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혁신의 주도권이란 거대하고 큰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시도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조직 전체 혹은 혁신의 유익을 누리게 될 집단 전체를 이끌어가는 흐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제자훈련이 처음 시작될 때는 성도들 사이에서 마치 영적성장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혁신을 도모하는 목회자라면, 성도들 사이에 제자훈련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제자훈련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교회 안에 팽배하도록 만들어야 진정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성공할 때 어느새 교회 안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혁신이 있으면 교회의 미래는 밝다

교회혁신은 경청에서 시작, 우선순위 설정 단계적 해결 노력 구체적으로 누구나 참여... 멈추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 밝아

면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변화인데, 왜 변화가 어려운가? 무엇이 하나님나라를 이루는데 필요한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가? 필요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게 된다. 모든 조직의 리더들이 경험한 혁신의 당혹스런 장애물들은 다음의 다섯 가지 중 하나이다. 전통, 성품의 차이, 이데올로기, 조직과의 관련성, 악한 세력.

분석의 법칙

오늘날 많은 영적리더들이 교회를 혁신시키고자 노력하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교회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모든 혁신에는 법칙이 있다. 교회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의 법칙을 알아보자.

모든 혁신은 기회분석에서부터 시작한다. 기회는 변화로부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교회혁신은 바로 이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무엇이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영적 리더들이 교회혁신에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회분석을 하지 않거나, 단기간 내에 그것을 끝내기 때문이다. 교회가 진정한 혁신을 이루려면 교회공동체

신의 해결책을 찾는 아이디어도 담임목사 한 사람의 머리에서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혁신을 추구하는 목회자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한다. 왜냐하면 교회혁신은 경청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교회혁신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혁신이 한 가지 초점에 맞추어졌을 때 나타난다. 하나의 문제를 혁신하기 위해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혁신은 한 가지만 해결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될 것인지 알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지 말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이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선순위의 법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동참과 목표의 법칙

혁신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작게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혁신을 시도해야 한다. 또한 혁신은 평범한 사람들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한국교회는 1980년대 중반까지 세계교회사 속에서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기부터 한국 교회의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성장을 아예 멈추어 버렸고, 현시점에서는 "이제 부흥의 불길은 새로운 아시아가 아닌 새로운 대륙으로 넘어갔다"는 자조적 비판의 시각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 수도권의 초대형교회들이 성공적으로 순항하고 있는 것은 예배혁신에 힘썼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약 20개월간 참여관찰,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등을 실시한 연구결과는 한국의 초대형교회들은 강해설교, 중보기도를 통한 치유사역, 평양동 신자를 받지 않으면서 교회의 규모를 줄이고 교회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담임목사의 임기제를 실시한다는 특징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국교회가 비록 성장둔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130여년 남짓한 한국 개신교 역사를 고려할 때 자칫 성급한 진단이 될 수 있다. 혁신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있는 한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sondongwon@gmail.com

기도/칼럼

마음 정리법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벌써 2월의 끝자락이다. 시간이 광속처럼 빨리 지나간다. 모세의 말처럼 세월이 신속히 지나간다. 인생이 날아간다. 아무 것도 한 것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 아쉽다. 이렇다가 또 한 해가 금방 지나갈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하다.

글을 읽다가 흥미로운 책을 하나 발견했다. 일본의 최고 자율신경 전문가인 '고바야시 히로유키'가 쓴 '하루 세 줄, 마음 정리법'이란 책이다. 저자는 교감신경을 액셀레이터, 부교감신경을 브레이크로 비유한다. 현대인들은 항상 긴장 상태에서 액셀을 끊임없이 밟아 과속상태의 삶을 산다는 것이다. 쉬 없이 질주만 하는 것이다. 교감신경만 과도하게 활성화 되면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혈관과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된다. 휴식을 취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교감신경의 독주를 견제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부교감신경을 사용하기 위해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세 줄 일기를 써보라고 권면하고 있다.

세 줄 일기 주제는 오늘 가장 안 좋았던 일, 오늘 가장 좋았던 일, 그리고 내일의 목표이다. 각 주제를 한 줄만 쓰기 때문에 일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세 줄 일기 쓰는 방법은 이렇다. 잠자기 전 책상 앞에 앉는다. 일기장에 날짜와 요일을 기재한다. 주제를 순서대로 기록한다. 글자 수에 제한은 없지만, 되도록 간결하게 쓴다. 반드시 손 글씨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쓴다.

3월부터 도전해보기로 했다.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세 줄을 쓰다 보면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자율신경도 안정이 될 것이다. 글을 쓰면 마음이 정리되고 리셋이 된다. 나쁜 기억이나 감정은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고, 좋았던 일만 기억의 창고에 간직하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며, 내일을 희망 가운데 계획하면 풍요로운 나날의 삶이 될 것이다. 기도도 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bible66@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뉴욕벡셀빌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해철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김경),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p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8)7406-7577, www.nyantioch.com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매주 1,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영어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986-4040, www.kapca.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김바나바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www.kcany.org 89-2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담임목사: 임한곤 목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승훈 목사 (베이크스펠드 아름다운교회)

흙 먼지가 잔뜩 앉아 있는 어떤 기계를 작동시킨다고 가정해 보라. 틀림없이 그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영적 의무 가운데 두드러지게 외면되어 오는 한가지 의무가 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예배의 의무와 봉사의 의무와 직분에 대한 의무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반면에 주 예수 그

리스도를 바라보는 의무에 대해서는 가벼이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필자는 최근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머리를 맞고 침 뱀음을 당했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적잖은 마음의 충격을 경험하였다. “바로 너야! 네가 머리를 맞아야 했고 네가 침 뱀음을 당해야 했잖아! 바로 너의 죄 때문이야!” 실제로 맞는 것 같았고 실제로 침 뱀음

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매우 강렬한 체험이었다. 예수님이 겪었던 수난의 아픔들이 뼈 속 깊이 내려 오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바로 너의 죄 때문이야” 성경이 모든 인류에게 내리는 영적 진단이다. 20세기 대표적 청교도 신학자로 알려진 아더 W. 핑크는 그의 저서 “사

람의 전적타락(Man’s Total Depravity)”에서 인간의 상태는 비참하고 파멸한 노예 상태이며,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하였다. ‘파멸’ ‘노예’ ‘죽은 상태’ 이것이 사람들의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는 주를 향한 그 어떤 선행도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비유하면 음식물이 없는 빈 그릇의 상태이다.

전적타락의 상태에서부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경은 제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요청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함이 당신의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섬기신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이 깨달아지고 섬김의 삶이 살아나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주 예

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으로 인하여 영적 전율을 느끼면서 온 가슴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설교자로서 설교의 의무를 떠올리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무를 생각해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무를 빠뜨린 채 준비하는 설교는 연설문 읽고 작성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예배자로서 예배의 의무를 떠올리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무를 생각해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무를 빠뜨린 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역의 의무를 떠올리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무를 생각해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무를 빠뜨린 채 행하는 사역은 하나님

과 상관없는 사역이 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영적으로 무력하고 지루하고 지쳐가고 있다면, 틀림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무가 소홀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른데서 원인을 찾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무를 바로 지금부터 실천해 보라. 만유의 주가 되시며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중보로 다스리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에 단 한번만이라도 생각하느라 바라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실 것이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그분이 함께 하고 계심을 더욱 확증케 하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GMS 아메리카지역 지부장 코디네이터 선교전략회의가 나침반교회에서 열었다

발족 후 첫 모임...지역 운영 방법 모색

GMS 아메리카지역 지부장 코디네이터 선교전략회의

GMS 아메리카지역 지부장 코디네이터 선교 전략회의가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에서 GMS 아메리카 지역 선교부 및 지역 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GMS 아메리카 지역장 조운

제 선교사(코스타리카)는 “GMS 아메리카지역이 처음 만들어지고 지역 운영과 방법을 위해 전략회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선교사는 “GMS 아메리카 지역은 알래스카부터 아르헨

티나와 브라질까지이며 많은 인구가 다양한 언어가 있다”며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어떻게 돕고 케어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어떻게 도와갈 것인지, 그리고 미주와 중남미 관계를 어떻게 사역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전략회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략회의는 △아메리카 지역 선교본부 운영과 시행을 위한 방법과 과제 △북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와 중남미 선교지와의 선교전략 △북중남미 OMTC 활성화로 1.5세, 2세 한인선교사 지원발굴을 위한 전략 △아메리카지역 선교훈련원 OMTC 활성화를 위해 △아메리카지역 선교전략 등에 대해 회의가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성결인명사전 개정증보판 출판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송정명목사와 이정근 목사가 성결인명사전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성결 인명사전’ 개정증보판 출판

한국성결교회 110주년 기념...총 1,410명 수록

성결 인명사전이 최근 출판됐다. 한국성결교회 문화선교회에서 출판된 성결인명사전은 3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991년 5월 초판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됐으며 올해 출판된 성결교 인명사전의 개정증보판이다.

증보개정판은 한국성결교회 110주년을 기념해 출판됐다. 총 1천264면에 수록된 인원은 1천410명이다. 이정근 목사는 “성결교 인명사전이 처음 출판됐을 때는 성결교단에서 활동 중인 목회자 중심으로 출판됐지만 이번에 출판된 성결교 인명사전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나성)은 물론 미주의 미주성결교회와 복음선교연합회(WEMA)까지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언론에서는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읽히듯 성결인명사전은 성결교의 휴먼 스토리를 담았으며 후손들을 위한 귀중한 신앙 교과서라고 부를 수 있다”며 “이 책은 후손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긍정적인 인물이 되고 싶게 만드는 역할을 할만하다. 세상에 문화재가 있다면 이것은 신앙재사건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성)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나성)은 물론 미주의 미주성결교회와 복음선교연합회(WEMA)까지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언론에서는 사람에게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읽히듯 성결인명사전은 성결교의 휴먼 스토리를 담았으며 후손들을 위한 귀중한 신앙 교과서라고 부를 수 있다”며 “이 책은 후손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긍정적인 인물이 되고 싶게 만드는 역할을 할만하다. 세상에 문화재가 있다면 이것은 신앙재사건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레가 되길 바란다”고 출판평을 했다.

송정명 목사는 “미주지역에서 성결교의 역사는 타 교단에 비해 짧다. 케네디 이민법이 발효가 된 1960년 이후 미주 땅으로 온 성결 교인들의 역사도 담았다. 이민 역사가 짧은 교회지만 가장 먼저 인명사전이 출판됐지만 누락된 미주한인 성결교인도 많다. 앞으로 추가해서 책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다. 중요한 것은 성결교인들의 역사가 후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언론을 통해 알리고 싶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성결인명사전은 국회도서관 국립도서관 신학교 도서관에 보급돼 있다. 미주지역 성결인명사전 배포 및 구매는 이지찬 장로가 맡았다. 이 장로는 “인명사전 가격은 150달러, 이번에 특별보급 할인가로 120달러에 살 수 있다. 이 가격은 배송비가 포함돼 있다. 필요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면 받을 수 있다”고 구매 방법을 알렸다.

▲문의: (213)840 0853, (626)636-1144

(박준호 기자)



미주장신대는 최근 두개의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미주장신합창단 창단예배때 본 합창단이 찬양하는 모습.

미주장신 사랑하는 이들 참여 감사예배

미주장신합창단 창단...산타페상담소도 오픈

미주장신합창단(단장 최재우) 창단 감사예배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채플실에서 19일 오전 11시40분에 열렸다.

최 단장의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최유진 팀장이 대표 기도를, 박현정 회계가 말씀봉독을, 미주장신합창단이 특별 찬양을 한 후, 최명환 목사(아름다운동산교회 담임)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4:23-24)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최 목사는 “하나님께서서 받은 사람만 찬양과 예배를 하는 사람만 찬양한다”며 그러한 사람은 “영과 진리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또 “오늘 창단한 미주장신 합창단이 청중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내 안의 예수 생명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는 합창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감사예배 중 목회학석사과정 을 배우고 있는 권명진 학우에게 아름다운동산교회 장학금(경진실천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어 동문회장 박종기 목사가 격려사를, 총장 이상명 박사가 축사한 후, 최명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미주장신합창단은 미주장신을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소정의 오디션과 면접을 통해 누구나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합창단 입단에 관한 문의는 조혜정 교수(213-500-2742)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미주장신대학교는 본교 부설 산타페상담소 오픈 감사예배를 12일 오후 5시 본교 채플실에서 가졌다.

김용환 교수(크리스천상담심리학 디렉터)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박운송 목사(엘피스 여성 기독교상담원 대표)가 기도, 안성복 목사(다우니제일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으며 신용환 목사(나성한미교회 담임)가 격려사를, 박종기 목사(전 미주장신 학생회장)가 축도했다.

예배에 이어 열린 2부 순서는 본 상담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3부 순서로 방문자들에게 선물증정하며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WCC 주최 3.1운동 100주년 기념 역사바로잡기 퍼포먼스 행사를 마치고 참석한 모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욱일기 연상벽화 반대...뮤지컬 도산 플래시몹 공연

WCC 주최 3.1운동 100주년 기념 역사바로잡기 퍼포먼스

월서주민회의(WCC 대표 정찬용 변호사) 주최 3.1운동 100주년 기념 역사바로잡기 퍼포먼스가 23일 오후 2시 마당골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퍼포먼스는 한인 타운

에 위치한 로버트 케네디 학교 내 일본 전범기인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벽화 철거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벽화철거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월서커뮤니티연합(대표 정찬용 변호사) 주최로 열렸다.

정찬용 변호사는 “오늘 퍼포먼스는 욱일기 패턴과 벽화에 사용된 패턴이 얼마나 비슷한 것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를 열게 됐다”며 “욱일기의 하얀 부분을 화랑레오파운데이션 학생들이 파랗게 칠을 하고 가운데 빨간 원을 할리우드 배우 에바 가드너의 그림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가 왜 벽화를 보면서 욱일기 연상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욱일기 연상 퍼포먼스를 마치면 뮤지컬 도산 팀의 플래시몹 공연이 이어져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이날 화랑레오 파운데이션 관계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 6백만명을 학살한 독일의 정치인들은 전범국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들은 하켄크로이츠와 나치 문양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며 지난 과오를 부끄러워한다. 반면 일본은 아직도 전범기인 욱일기를 해군의 상징으로 부끄럽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등 스스로 제국주의화 하려고 한다”며 “일본이 국제사회에 건강한 일원으로 존중받고 싶고 동북아 국가들의 우방으로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싶다면 피해국가와 징용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미국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가 증오와 상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범기 문양에까지 허락해서는 안 되며 한인 타운에 설치된 전범기 문양의 벽화는 철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플래시몹 공연에 참여한 팜페라 가수 최원현 씨는 “욱일기 연상 벽화 철거운동에 뮤지컬 도산팀이 함께해 철거운동의 정당성 부여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며 “특별히 삼일절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저희 뮤지컬 팀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며 이번 이슈가 한일 양국이 큰 마찰 없이 무사히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조찬기도회

민주평통 LA 종교분과위원회 주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회장 서영석 장로) 종교분과위원회 주최로 23일 가든스윗 호텔에서 삼일운동100주년 기념 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종교분과 위원장 정요한 목사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서영석 회장 인사말씀, 부회장 장병우 장로 대표기도, 특임간사 이명은 전도사 성경봉독, 새생명 선교회 박희민 목사 설교, 최학량 목사 축도 순서가 있었다.

부회장 장병우 장로 기도, 특임간사 이명은 전도사 성경봉독과 남가주교협 회장 한기형 목사, 남가주 한인목사회 회장 김관진 목사,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 서부총회 총회장 황선철 장로 축사가 있었다.

남가주교협 총무 안신기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총무 강태광 목사, 민주평통 모종태 장로, 정우성 목사의 공동기도가 있었다. 이날 박희민 목사는 설교를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조찬기도회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통해 “민주평통 LA협의회에서 삼일절 100주년을 맞이해 기념특별한 조찬기도회 갖게 돼 감사하다”면서 “삼일운동은 우리 온 국민들이 함께 참여했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한 것같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는 우리 모두가 통일에 대비하면서 기도하자”고 전했다.

이날 이른 아침시간에도 한인커뮤니티지도자들과 교계지도자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기사제공: 민주평통 LA 종교분과위원회)

뉴욕일원 교/계/소/식

아름다운교회 3대 담임 국윤권 목사

아름다운교회 3대 담임 목사로 1.5세 국윤권 목사(사진)가 청빙됐다.



2월 24일 주일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인준 투표를 한 결과 청빙위원회가 최종 후보로 단독 추천한 국윤권 목사(시애틀 형제교회 부목사)를 3대 담임목사로 결정했다. 국 목사는 총 투표인수 801명 중 찬성 553명, 반대 245

명, 기권 3명으로 69%의 찬성률로 내규에 따라 가결에 필요한 66.6%를 넘겼다.

1.5세인 국윤권 목사는 43세로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서 화학을 전공(B.A.)했다. 트리니티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M.Div.)와 신학석사(Th.M.) 학위를 받았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애틀란타 새한장로교회 부목사를 거쳐 2011년부터 시애틀 형제교회 부목사를 역임했다.

아내 국지민 사모도 1.5세다.

미주성결교회 중앙지방회 42회 지방회

미주성결교회 중앙지방회 제42회 지방회가 2월 18일 리지필드 팍에 위치한 뉴저지 새사람교회(김동권 목사)에서 열려 다음과 같이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됐다.



사(뉴저지새사람교회) △부회계 임종렬 목사(필라소망교회).

이번 지방회에서는 박광훈(뉴욕성결교회)과 안성주(뉴저지 새사람교회)가 피택 장로가 인준을 받았다. 또 뉴저지성결교회(김경수 목사), 갈보리교회(김주동 목사), 복음성결교회(이상민 목사) 등 신설교회를 승인했다.

△지방회장 이용우 목사(뉴저지중부교회) △목사부회장 정민영 목사(행복한우리교회), 장로 부회장 김은국 장로(열방교회) △서기 이기웅 목사(뉴욕성결교회) △부서기 노준호 목사(늘찬양 교회) △회계 김동권 목사

뉴욕셋세마네교회 2019년 신년음악회

미주성결교회 중앙지방회 제42회 지방회가 2월 18일 리지필드 팍에 위치한 뉴저지 새사람교회(김동권 목사)에서 열려 다음과 같이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됐다.



저지새사람교회) △부회계 임종렬 목사(필라소망교회).

이번 지방회에서는 박광훈(뉴욕성결교회)과 안성주(뉴저지 새사람교회)가 피택 장로가 인준을 받았다. 또 뉴저지성결교회(김경수 목사), 갈보리교회(김주동 목사), 복음성결교회(이상민 목사) 등 신설교회를 승인했다.

△지방회장 이용우 목사(뉴저지중부교회) △목사부회장 정민영 목사(행복한우리교회), 장로 부회장 김은국 장로(열방교회) △서기 이기웅 목사(뉴욕성결교회) △부서기 노준호 목사(늘찬양 교회) △회계 김동권 목사(뉴

뉴하트선교교회 10주년, 히스빌로 이전

설립 10주년을 맞은 뉴하트선교교회(정민철 목사)가 롱아일랜드 히스빌로 이전한다.



지난 2월 24일 뉴하트선교교회는 영어와 한국어 회중이 함께 모여 주일예배를 드렸으며 이 예배는 그레이트 소제 미국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예배였다. 3월 3일 주일부터는 새 장소(17 Herzog Pl. Hicksville, 11801, 사진)에서 예배를 드리며 현재 건물 구입 진행 중으로 클로징을 앞두고 있다.

회를 세우셨는데, 그 꿈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 주신 꿈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빌이라는 예상하지 않는 지역으로 보내시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선교지"라며 "앞으로 2세만이 아니라 모든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모든 민족들을 포용하고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복음과 성령의 역사만을 불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정민철 목사는 "여기서 10년이 지나간 것이 너무 꿈같다. 다음세대를 세우고 가정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교

할렐루야대회 강사 정연철 목사(삼양교회)

뉴욕교협 2차 임실행위원회, 4차례 집회일정 발표

제 45회기 뉴욕교협이 지난 20일 새가나안교회(이병홍 최요셉 목사)에서 제 2차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2019년 4차례에 걸친 집회일정을 발표했다. 집회를 통해 회기 표어인 "성결한 삶을 실천하는 교협"을 지향하고 뉴욕교계에 부흥의 불을 지피겠다는 의도다.

첫 집회는 △신유축복 대성회로 유수양 목사(순복음 부흥사회 회장, 목자교회)를 강사로 3월 1일부터 3일간 뉴욕호신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성령화 대성회는 윤보환 목사(한기부 대표회장, 영광교회)를 강사로 5월 10일부터 3일간 열린다. 장소는 미정. 이어 △할렐루야 대회는 정연철 목사(한국 삼양교회)를 강사로 7월 12일부터 3일간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다. 마지막 △차세대를 위한 집회가 9월 6일부터 3일간 프라



뉴욕교협 임실행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스교회에서 열린다. 강사 미정.

이외에 부활절새벽연합예배(4월 21일)와 체육대회(9월 19일)은 그대로 진행한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최요셉 목사 인도로 기도 김영호 장로(뉴욕장로연합회 회장), 성경봉독 이광모 장로(재정분과), 설교 신현택 목사(증경회장), 합심 통성기도 박이스

라엘 목사(역사분과), 광고 이장중 목사(서기), 축도 이병홍 목사(증경회장) 순서로 진행했다.

신현택 목사는 "충성된 사랑"(고전4:1-5)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



UMC 뉴욕연회 한인교회연합회 목회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으로 김종일, 양민석, 이용보, 강원근, 김정호, 김남석, 찰리온, 이종범 목사.

뉴욕 목회자들 "전통주의 플랜" 고수

UMC 동성에 정책 결정 특별총회 앞서 입장 발표

미 연합감리교회(UMC)의 동성에 정책을 결정하는 특별총회가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려 동성에 정책변화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총회들도 긴장 가운데 있다.

지난 2월 11일 LA에 이어 21일 뉴욕에서도 뉴욕연회 한인교회연합회 목회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발표를 했다.

연합회 회장 양민석 목사는 "이번 기자회견은 뉴욕연회 한교인 목회자들의 신학적 입장과 목회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며 교단 결정 여부와 관계없음도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가장 통과가 유력시 되는 원처치 플랜에 대한 설명(전통주의 플랜, 연대적 플랜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은 이용보 목사와 김종일 목사가 했다.

또 WCA(웨슬리협약)와의 연대 여부에 대해서 강원근 목사, 한인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김정호 목사, 이종범 목사가 각각 설명했다.

한교인 목회자들은 이날 7개 항에 이르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요한 3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총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혼인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현 장정의 입장과 전통적인 성서 신학적 입장을 고수' 한다.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 되는 것을 규정한 현

장정의 분명한 입장을 지지한다.

△동성결혼 및 주례, 동성애자 안수에 관해 불허를 명시한 현 장정의 규정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이 동성애를 배척하거나 인권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이날 목회자들은 현재 다양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단 총회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강원근 목사는 "한인총회 내에는 한인목회와 타인종 목사, 여성 목회자들, 2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각자 입장이 다르다"며 "한인총회라고 해서 다 연합할 수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한인교회연합회를 구성할지, 독립연회 혹은 선교(차지)연회 설립도 고려하고 있으며 재산유지 여부가 마지막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목사는 "UMC는 교리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교리로 싸우지 않을 것"이라며 "보수연회 내의 한인교회는 문제가 없지만 진보연회 내의 한인교회들이 문제다. 1200만 교단 유지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보 목사는 "남는 것이 순응하는 게 아니라 신앙양심 보장을 받아야 한다. 수용이 아니고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는가를 알아야 한다"며 "목회 성공은 한 영혼을 위해 생명 바치는 목회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첫째, 사도인 동시에 노예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둘째,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며 목회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맡겨진 양들을 충성으로 돌보는 목회자들이 되자"고 도전했다.

2부 회의는 회장 정순원 목사 사회로 임병남 목사(신입회원분과)의 개회기도 후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45회기 예산안(수입과 지출 414,742달러)을 통과시켰다.

또한 회장 정순원 목사가 텍사스로 목회지를 옮기는 황태연 목사에게 격려금을, 뉴욕나눔의집 대표 박성원 목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예배를 마치고 담임목사와 함께 은퇴자, 파송자 등이 기념촬영 했다.

"새로운 도전, 사명의 길 함께 가자"

설립 45주년 퀸즈장로교회, 다양한 행사

설립 45주년을 맞은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가 지난 24일 오후 4시 기념예배를 드렸다. 교인 중심으로 드린 기념예배에서는 장로 은퇴식, 전도사 은퇴식, 성교사 파송장 수여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됐다.

담임 김성국 목사(본지 발행인)는 "사십오 년 동안" (수 14:1-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에서 갈렘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은 후 45년이 흐른 뒤 고백을 하고 있다"며, "4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며 갈렘이 하고 싶은 말은 첫째, 생존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셋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45년 동안 성경에는 갈렘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충성했는 것이다. 퀸즈장로교회가 척박한 이민 환경 속에서 45년을 생존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한 순간도 놓침 없이 그 자리에서 충성한 은퇴 장로, 사역자들에게 감사한다.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 목표를 향한 사명의 길을 함께 가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목회자들은 현재 다양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단 총회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45년 동안 성경에는 갈렘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충성했는 것이다. 퀸즈장로교회가 척박한 이민 환경 속에서 45년을 생존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한 순간도 놓침 없이 그 자리에서 충성한 은퇴 장로, 사역자들에게 감사한다.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 목표를 향한 사명의 길을 함께 가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예배는 김성국 목사 사회로



뉴욕청소년센터 2월 정기 이사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솔리스트들의 서창에 이어 기도 이규성 장로, 성경봉독 송요한 목사, 찬양대 찬양. 말씀 김성국 목사, 45주년 기념영상, 장로는퇴식(홍승룡, 김원도), 전도사 은퇴식(계화자), 선교사 파송장 수여(전성호), 명예권사 추대패(정경재, 박만우, 박순임, 김한숙), 답사 홍승룡 장로, 격려사 허경화 장로, 장학금 수여, 설교문 발표(조하민), 축복기도 김도현 목사, 특별찬양 헤리티지콰이어, 광고 첼위지 목사, 축도 김성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홍승룡 장로는 "하나님과 장영출 원로목사, 김성국 담임목사, 동역한 장로 권사 집사들에게 감사"하며 "은퇴 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CC TV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겠다"고 답사했다.

장학금 수여는 퀸즈장로교회기 매년 설립기념예배를 위해 수여하는 것으로 올해는 초중고 대학생 28명이 받았다. 장학위원회는 이번 장학생 평가기준은 '복음중심'의 설교문 작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밝혔으며 대표로 조하민 학생이 설교문을 발표했다.

한편 퀸즈장로교회는 3월 11일(월)부터 제 32회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시작한다.

(유원정 기자)

"기도의 울타리를 치라!"

뉴욕청소년센터 2월 정기 이사회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AYC, 대표 황영송 목사, 이사장 이주익 장로)가 2월 정기 이사회를 열었다. 21일 저녁 6시 뉴욕수정성결교회(황영송 목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이사진과 임원들을 소개하고 대표 황영송 목사가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이주익 이사장은 "세상에 많

은 일이 있지만 청소년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한다"며 이사진에게 "뉴욕 청소년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일하자"고 당부했다.

대표 황영송 목사는 "18년간 영어권 사역과 10년간 한인 목회를 해오면서 스스로 차세대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시무하는 "수정교회 성

도 절반이 2세"라고 소개했다. 황 목사는 "다시 대표를 맡으면서 대표가 할 일은 AYC가 할 일을 잘 하도록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사회 지원에 부탁했다.

김준현 사무총장은 2019년 사역소개 및 보고에서 이미 2월에 진행된 △직업상담, 대학진학 상담세미나 △SAT 클래스 오픈 △목회자 컨퍼런스(가정폭력대처 방안) △농구대회(실내 첫 시도) △연합수련회(35명 참석 예상, 스태프 15명)

△범죄예방 세미나 △갈라 △유스 할렐루야대회(타민족과 함께 시도) 등을 설명했다.

안건 중 △예산안은 수입과 지출을 모두 작성해 다음 이사회 때 다시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어카운트 추가 오픈에 대해서는 항목을 분명히 구분하기로 결의했다.

△파트타임 사역자 2명은 김창인 목사(행정 및 웹 담당)와 사무엘 D. 리 전도사(EM)를 소개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정관 수정을 위해 정관개정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황영송 목사 인도로 기도 송윤섭 장로(부이사장), 설교 양민석 목사(교협부회장), 광고 김준현 목사(사무총장), 축도 김영철 목사(감사) 순서로 진행됐다.

양민석 목사는 "기도의 울타리를 치라!"(막9:14-2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에서 사단이 아이를 공격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은 더욱 공격받을 수 있다"며 "우리가 사단을 쫓아내야 하는데 '적당히' 신앙을 가져서는 결코 쫓아낼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녀를 위해, 우리의 영성을 위해, 뉴욕의 모든 교회에서 어둠의 세력이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는 김영호 장로 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복음 증거에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GMS 미주 OMTC 제6기 선교사 훈련 수료식 및 임명식

GMS 총회세계선교회 미주 OMTC 제6기 선교사 훈련 수료식 및 임명식이 21일 오후 3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병구 선교사(OMTC 훈련원장) 사회로 시작된 수료식 및 임명식은 사회자가 미주 OMTC 학사보고 했으며 민찬기 목사(OMTC 이사)가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어 김정훈 목사(GMS 이사장)가 서약했으며 OMTC 이사



GMS 미주 MC 제6기 선교사 훈련 수료식 및 임명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와 GMS 선교사들이 안수위원으로 나서 수료를 하고 GMS 선교사로 임명받은 자들을 안수했다.

그리고 김정훈 목사가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전철영 선교사(GMS선교총무)와 조운제 선교사(아메리카지역장)가 축사를, 박재신 목사(전주양정교회)와 김주원 목사(중현선교회)가 격려사를 했으며 김경환 6기 선교사 대표가 답사했다.

김경환 선교사 대표는 “6기 선교사 훈련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무사히 마쳤다”며 “6

기 훈련을 통해 주안에서 배운 지혜 지식 능력 가지고 세계선교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려면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됐다.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을 선교현장에서 나눠주게 될 것이다. 항상 낮은 곳에 머물고 겸손하게 살아갈 것이다.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수료식 및 임명식이 열리기 전 민찬기 목사(OMTC 이사)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이영희 목사(OMTC 이사) 기도, 김명자 선교사(미국지부장) 성경봉독, 김정훈 목사(GMS 이사장)가 “예수님을 따라 사서 고생하라”(요12:20-2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행사는 박동주 선교사(브라질)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안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블레싱 콘서트가 GBC 주최로 남가주동신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안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블레싱 콘서트

남가주동신교회에서 동신트리오 찬조출연

안산시립합창단(지휘 박신화 교수)과 함께하는 블레싱 콘서트가 미주복음방송 주최로 24일 오후 6시 남가주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백정우 목사 기도로 시작된 콘서트는 ‘알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를 앙모하는 자’ 등 성가곡과 ‘벧노래’, ‘여랑’, ‘8소성’, ‘아리랑’ 등 한국의 정서가 담긴 곡들을 선보였다.

또한 피아노 서지영, 바이올린 황여주, 첼로 서인우 등으로 구성된 동신트리오가 찬조출연했다.

이날 공연은 ‘축복하노라’ 등을 앵콜 곡으로 부른 뒤 이서 목사(OC교협회장) 축도로

마쳤다.

안산시립합창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합창단으로 단원 전원이 크리스천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은 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무리엘 카우프만 극장에서 열리는 2019 미국합창지휘자협회(ACDA) 초청공연 참가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으며 ACDA 행사 전 남가주에서 공연을 가졌다.

한편 블레싱콘서트가 열리기 하루 전인 23일 오후 3시 감사한인교회에서 남가주한인기독교음악회 주최로 리딩 세션을 가졌으며 박신화 교수가 강사로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생터사역원 LA 1기 전문강사 스쿨 졸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어? 성경이 읽어지네!’ 졸업식

LA 1기 전문강사스쿨 총 19명...목회자성경방 시작

‘어? 성경이 읽어지네!’(생터사역원/이하 여성경) LA 1기 전문강사스쿨 졸업식이 지난 23일 오후 4시 하늘소망교회에서 열렸다.

김덕수목사(하늘소망교회) 인도로 시작된 졸업 감사예배는 이종길 목사 기도(주님의총신교회), 설교 김덕수 목사, 축도 신광섭 목사(성림교회)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주님의 마음으로’(마14:12-14)란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벧새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예수님, 그 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주시기 위함이었으며 ‘나는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고 싶었다. 또한 이런 이적을 일으킨 동기는 ‘불쌍히 여김’이었다. 오늘 졸업하신 분들이 전문강사로 말씀사역에 임할 때, 사역의 동기는 반드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졸업식은 김덕수 목사의 학사보고가 있던 후 자격증과 상장, 메달을 수여했다. 이날 축사는 백성환 목사가 맡았으며 홍성화 목사도 원영식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이 날 답사는 최우수 졸업

자인 임다나 전문강사가 맡았다.

그동안 여성경 전문강사스쿨은 남가주에서 1기부터 4기까지 열려 전문 강사를 배출해 왔다.

금번 LA 1기 전문강사스쿨은 지난해 8월 여성경 생터성경사역원 LA지부(지부장 김덕수 목사)가 설립된 후 처음으로 LA에서 열린 스쿨이다.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본 전문강사스쿨은 지난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19명의 전문강사를 배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성경일독학교’를 개인적으로 또는 팀사역으로 인도하게 된다.

2기 전문강사스쿨은 오는 6월에 개강될 예정이며, 성경방에서 공부하고 성경 일독을 마친 분은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목회자성경방’이 시작돼 진행되고 있다. 성경방을 통해 함께 공부하며 ‘성경 일독’을 원하시는 분은 LA지부(전화 213-500-2948 또는 이메일 ahajausa@gmail.com)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성자 기자>



성화장로교회에서 열린 박종호 장로 찬양집회에서 박종호 장로와 청중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간 회복불능 고침 받고 사역 진행중

성화장로교회, 박종호 장로 찬양집회

성화장로교회(담임 이동진 목사)는 박종호 장로 찬양집회를 24일 오후 1시30분에 가졌다.

이동진 목사 사회로 시작, 박종호 장로에 대한 영상이 소개됐으며 박종호 장로가 나와 집회를 인도했다.

박종호 장로는 “장래가 축망 받는 성약이었고 이태리 유학을 준비 중이었지만 유학기간 한 달 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찬양사역의 길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박 장로는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고 34년간 찬양을 통한 선교사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건강검진 때 8명의 의사들에게 간 기능 회복불능이며 항암치료조차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됐을 땐 여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복음성이 가수로 유일하게 세종문화회관에서 8번, 예술의 전당 대극장 무대에 4번을 설장도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세상 것 다 버리고 찬양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나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니 나 자신의 삶에 화가 났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121편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다”며 “나는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종호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만들어지기 전

부터 너를 안다’고 하셨다. 하지만 ‘내가 너를 살려낼 것’이란 말씀은 없으셨다. 이는 나 자신이 살아야만 성경이 진짜가 아니며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진짜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능이 멈춘 간을 통째로 잘라냈고 막내딸의 간을 이식받게 됐다”고 간식 당시의 일을 회상했다. 박종호 장로는 “지난 16년간 미국전역을 다니며 크고 작은 한인교회에서 찬양집회를 했다”며 “집회를 통해 모은 수익 220만 달러를 선교지 보냈다. 그중 2천명 선교사가 수술할 수 있었으며 탄자니아와 인도에 에이즈 걸린 아동을 위한 고아원을 건립했고 지난 2012년 인도에 에이즈 병원을 세울 수 있었다. 이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모든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성도들의 피와 땀이 담긴 헌금이며 그분들 덕분에 사역할 수 있음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찬양집회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누군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불렀으며 ‘주기도문’을 마지막 곡으로 불렀다. <박준호 기자>



‘그 십자가의 사랑이야기’ 주제 폴아트리 목사의 복음전시회에서 폴 아트리 목사가 그의 작품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야기’ 주제

폴아트리 목사 복음전시회 열어

‘그 십자가의 사랑이야기’ 주제 폴아트리 목사의 복음전시회가 산타모니카에 있는 아레나 원 갤러리(3026 Airport Avenue)에서 2월 23일부터 열리고 있다.

홀리원교회 담임이자 에버아트 미술교사인 폴아트리 목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야기를 전시하게 된 것이 감사하다”며 “전시

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사랑 전해지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1년 정도 준비해 열게 된 전시회는 십자가를 형상하는 바탕에 장미, 백합화 등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들을 넣어 작품이 제작됐다. 이 복음 전시회는 3월 9일까지 연다. ▲문의: (310)606-9255 <박준호 기자>

서부교회 게시판

west

유학생 및 신학생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강좌

유학생 및 신학생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강좌를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그레이스미션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오픈리카운티 플러튼 은혜한인교회 캠퍼스 내 Grace Library GL2 강의실에서 3월 1일(금)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교회행정, IT, 비영리단체 및 비즈니스선교 담당 교수로 사역하고 있으며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제임스구 교수. ▲문의: (714)393-4595

2019 미국 장애인교회학교 교사 세미나와 PCSM

2019 미국 장애인교회학교 교사세미나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장애인교회학교(암5:24)’라는 주제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GSNM(Global Special Needs Ministry) &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 주최로 열린다. △교사를 위한 세미나: 3월 8일(금)과 9일(토), 10일(주일)은 남가주사랑의교회 사랑부 교육탐방 시간. 또한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장애인선교 전문사역자과정을 갖는다. 강사는 김해용 목사 외 11명. 회비 1인 120달러, 5인 이상 등록시 100달러. PCSM(장애인선교전문사역자과정) 2박3일 연수비는 250달러이며 강의, 강의교재, 식사 및 간식(숙박은 별도 예약)이 제공된다. briankchang@hotmail.com(장경일 목사) ▲문의: (320)350-1384 GSNM, (714)402-6482 사랑의교회

LA온누리교회 대화의 기술 세미나

한인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LA온누리교회(담임 이정엽 목사)가 ‘서로를 살리는 대화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오는 3월 2일(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대화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는 결혼과 가족 전문상담사인 박성심 사모.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 예약은 인터넷 웹사이트(www.yudogo.com)에서 가능하다. ▲문의: (213)926-8018

미주장신대 북 콘서트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첫 번째 북콘서트를 3월 13일(수) 오후 12시 20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본교 채플실에서 갖는다. 북콘서트는 김일권 교수(선교학)가 “우드베리의 이슬람 선교신학”에 대해 소개하고 김루빈 교수(학생처장)가 서평,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문의: (213)703-9856



제2회 소망 웰에이징 어워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우측 원인은 소망웰에이징 어워드 수상한 김 그레이스 장로와 유분자 이사장이 시상하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

그레이스김 장로 소망웰에이징 어워드 수상

교사, 카운슬러로 활동...소망소사이어티에 상금 기부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모토로 사역하고 있는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주최한 제 2회 소망웰에이징 어워드가 22일 오전 11시 욕스포드팔레스트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유분자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소망소사이어티가 창립1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것이 소망웰에이징 어워드”라 소개하며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잘살았다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후회하며 삶을 마감한다. 소망웰에이징 어워드는 참 잘살았다 이렇게 살면 후회 없겠다는 자를 발굴하고 그의 삶 돌아보고 축하하는 자리이고 아름다운 삶의 표본 알려져 귀감이 되게 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그레이스김 장로님은 평생 커뮤니티 리더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의 삶을 돌아보며 아름다운 삶의 다짐을 모두가 새롭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철 사무총장 사회로 시작된 시상식은 송정명 목사(전 윌드미션대학교 총장)가 기도했으며 이경근 목사(소망&나눔 편집교문/유니온교회 원로)가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김용화 위원장(선정위원회)이 선정과정과 그레이스 김 장로의 약력을 소개했으며 3월 9일까지 연다. ▲문의: (310)606-9255 <박준호 기자>

이스김 장로에게 ‘아름다운 삶의 여정’상을 시상했으며 그레이스김 장로는 함께 받은 상금을 소망소사이어티에 기부했다.

그레이스김 장로는 “저에게 건강주시고 사랑 많으신 부모님을 따르며 부모님을 통해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음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레이스김 장로는 고등학교 교사와 카운슬러로 활동했다. 김 장로는 △청소년의 고민과 심대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의 교육을 인도해줄 수 있는 지침서를 발행해 1세와 2세 그리고 3세를 연결하는 다리역할을 했으며 △1970년대 2중살인 행위로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던 이철수씨의 구명운동에 앞장서 이민자로서 부당하게 받는 불의에 항거해 미주한인들을 한마음으로 모아 큰일을 도모한 커뮤니티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다.

△교회의 리더로 87세의 고령임에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운동에도 열심을 다하고 있다. △남편 고 김익창 박사가 UC데이비스교수직을 은퇴할 때 살던 집을 팔아 대학에 기증, Palowment Fund를 조성해 후배양성에 앞장서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기부문화의 선구자가 돼 1세와 2세 그리고 3세의 귀감이 됐다. <박준호 기자>

이어 유분자 이사장이 그레이스김 장로에게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상을 시상했으며 그레이스김 장로는 함께 받은 상금을 소망소사이어티에 기부했다.

“조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자”

한국교회 3·1운동 100주년 앞서 전국서 기념예배

한국교회가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24일 전국 곳곳에서 기념예배를 드리며 3·1운동의 원동력인 기독교 신앙 계승을 다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은 서울 종로구 서대문교회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고 3·1운동 정신 계승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승희 총회장은 “우리 신앙선배들은 조국의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 언어와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 앞에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 예배에서 사와 마사유기 일본 그리스도교회 규슈노회장이 일제의 만행에 대한 사죄선언을 했다. 총회는 3·1운동에 참여한 왕십리교회에 헌관을 증정하고 독립운동가 최재화(1892~1962) 목사의 유족인 최성구 장로에게 유공자패를 전달했다.

예장통합은 이날 전국 교회별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를 드렸다. 립형석 총회장이 시무하는 안양 평촌교

회에선 성도들이 “우리는 이에 우리 조국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 민족임을 선언하노라”로 시작하는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제창했다. 립총회장은 “73년 전 하나님은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우리 민족에 해방을 주셨다”면서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는지 회개하며 민족의 통일을 위해,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당부했다.

부산 교계도 이날 부전교회(박성규 목사)와 동래시장 만세거리에서 ‘나라사랑기도회’와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가졌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와 부산성시화운동본부가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6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덕주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장은 ‘죽어서 사는 생명의 길’이라는 설교에서 “나라사랑을 위해 기도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후 성도들은 동래시장 만세거리에서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가졌다. 박성규 부전교회 목사는 “부산이 69년 전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낙동강의 최후 방어선이 됐듯이 이번 기도회는 잠든 애국심을 일깨우고 신앙 안에서 애국애족의 정신이 계승되도록 간구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대전기독교연합회와 대전성시화운동본부도 이날 대전 새

로남교회에서 ‘3·1절 기념예배’를 드렸다. 강사로 나선 박용규 총신대 총장직무대행은 ‘기독교와 민족’이라는 설교에서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될 때 기독교인은 독립협회, 독립신문, 독립군, 국채보상운동, 애국애족운동, 3·1운동을 통해 민족애를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년 전 우리 민족이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독교인들은 침묵하지 않고 독립운동의 횃불을 높이 들었다”면서 “우리도 민족과 교회를 책임지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사를 준비한 오정호 퍼스트코리아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연합 대표회장은 “대한독립만세운동은 조선의 1%에 불과한,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도한 운동”이라며 “기독교를 적폐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시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에 맞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라를 위해 연합하며 기도할 때”라고 강조했다.

독립운동가를 다수 배출한 서울 중구 남대문교회(손윤탁 목사)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날 손윤탁 목사가 ‘찬송가와 함께 부르는 애국가’를 주제로 설교했으며 독립운동 패처럼 ‘올드 팬 사인’ 곡에 맞춰 온 성도가 애국가를 합창했다. 서울 마포구 신촌성결교회(박노훈 목사)도 이날 오후예배 때 ‘3·1절 구국기도회’를 특별설사로 진행했다.

왕이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화해를 구하길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는 지난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C)와 한·일교회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진실에 기초한 역사의 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일본의 헌법 9조 및 입헌민주주의, 동북아시아의 비무장 비핵지대 확립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왜 기도하는가’ ‘랍비 예수’ ...

한국기독교출판협, 최우수도서 10편 선정·시상

한국기독교출판협회(방주석 회장)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35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시상

식을 가행했다.

기출협은 해마다 어린이, 청소년, 신앙 일반, 목회자료, 신학 5개 분야를 국내외로 나눠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을 선정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디지털 시대의 폭발로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이 활발히 펼쳐진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1번 동향에서 보았듯이 대안을 찾는 것이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가 가장 최고/멋진/핫한/정통인/무엇이든 최고”라고 접근하는 교회는 사람들을 붙잡아두는데 기초가 부족할 것인데, 이는 이 시대가 내용이 어디서나/어떻게나/어디든지 소비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내용을 소비하는 것은 지정된 시간에 한 장소로 운전해가서 뒷줄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러닝머신 위나 출퇴근 하며 하기가 훨씬 더 쉽다.

결과적으로, 많은 소비자 중심의 기독교인은 소비지도 하지 못할 것이고, 남아 있는 성도도 떠날 것이다. 더 큰 사명을 위해 모이고 헌신하는 것보다 그저 어디서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내용을 소비하는 것은 지정된 시간에 한 장소로 운전해가서 뒷줄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러닝머신 위나 출퇴근 하며 하기가 훨씬 더 쉽다.

결과적으로, 많은 소비자 중심의 기독교인은 소비지도 하지 못할 것이고, 남아 있는 성도도 떠날 것이다. 더 큰 사명을 위해 모이고 헌신하는 것보다 그저 어디서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교계 대표기관 역할 감당”

한교총, 법인 설립...대사회 대정부 활동 탄력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소속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사회 대정부 활동에서 탄력을 받게 됐다.

한교총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법인설립 감사예배를 드리고 공교회 중심의 연합운동과 법인 설립의 의미를 재확인했다. 법인 이사장을 맡은 이승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은 취지 설명에서 “전국 6만여 교회 중 5만4000여 교회가 소속된 한교총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교회 보호에 한목소리를 내고 기독교 진리수호와 복음 통일에 앞장서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교총은 인간적인 생각을 관철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는 공교회의 연합기관이 돼야 한다”면서 “한국교회 연합운동 30년의 성과와 실패를 거울삼아 책임감 있게 연합운동을 전개하자”고 당부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주축이 돼 2017년 12월 설립했다. 예장합동 통합 백석대신 고신 합신, 기독교대한감

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모두 소속돼 있다. 성직자 양성기관으로 교육부 인가 4년제 대학교나 대학원대학교를 보유한 교단이 중심이다. 교단 구성과 운영에 합법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노회(지방회)와 총회를 구성하는 교단, 사이버 이단 시비가 없는 교단을 가입 기준으로 삼는다.

변창배 한교총 서기는 “정부는 종교단체와의 교류·협력 때 법인 유무를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한교총은 앞으로 대사회, 대정부 대화에 있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획기적 합의안 기대”

기독교공공정책협, 북·미 정상회담 관련 성명 발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25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합의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결과를 기대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가 입증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공조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한반도 평화

“믿음의 리더십으로 분열·갈등 넘어 미래 열자”

각계 기독교인 지도자들 참여...영적 성장·교계 프로그램 풍성

정계 관계 재계 등 한국 사회 각 분야의 크리스천 리더들로 구성된 ‘국민일보 크리스천리더스포럼’이 21일 출범했다.

크리스천리더스포럼은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창립식을 가졌다. 창립식에는 포럼 회장을 맡은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과 부회장 이남진 전 전주대 총장(국제미래학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신앙의 선조들이 3·1운동을 이끈 것처럼

시대를 이끄는 리더십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며 “우리들도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어른다운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은 축사에서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국민일보의 역할은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창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새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늘 함께하는 크리스천 리더들의

해왔다. 올해는 기출협의 46개 회원사가 출판한 230여 종을 놓고 심사위원 12명이 1차 심사를 한 뒤 2차 심사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작을 골랐다. 전체 대상작 없이 부문별 최우수상 10편을 선정했다.

신앙 일반에 ‘왜 기도하는가’(두란노)와 ‘랍비 예수’(국제제

자훈련원), 목회자료 부문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아가페복스)와 ‘예수님의 모든 질문’(규장), 신학 분야에서 ‘이것이 교회사다’(페텔)와 ‘바우어 헬라어 사전’(생명의말씀사)이 각각 선정됐다. 기출협은 분야별 후보작에 올랐던 책 가운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우수 기

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국민통합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2012년 3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 연합기관들과 교회, 단체, 학자, 전문가들이 교계의 대정부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많은 지지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이단은 물론 반 기독교적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해 이 나라를 회복시키자”고 말했다.

방송인 정선희 집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김병삼 분당 만나교회 목사는 기독교인의 성품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이 간증하고 가수인 자두사모가 특송했다.

크리스천리더스포럼은 국민일보의 미디어 선교에 대해 자문하고 회원들 간 영적 성장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은사적 표현, 인터넷 예배 활성화...

(3면에서 계속)

위에 정리된 여러 이유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람을 인터넷 예배에 배치할 필요가 없는 초대형 교회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교회는 인터넷 예배가 진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천 명이 넘는 교회조차 대부분의 교회는 만들어 지는 부서에 구인권을 올리려는 정도도 온라인 분야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세요. 인터넷에 올린 설교를 들으시겠어요?’ 정도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어쩌다 5년마다 한 번씩, 다음 5년의 문제를 수정하기를 바라며 사이트를 제대로 잘 작동할 누군가를 고용하기 위해 얼마간의 돈을 할당한다.

문제는 상당히 많은 교회가 온라인이 아닌 실제 구인 비용에 99%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점차, 올해 많은 교회가 구인 비용에 1%를 쓰며 인터넷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가? 1번과 2번 동향에서 보았듯 인터넷은 생명에 다가가려는 전

체 공동체의 장이다.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원한다면, 재원의 1%를 쓰는 것은 가장 스마트한 전략이 아닌 것 같다.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근본과 관련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30%의 재원을 사용하는 인근 교회가 있는가? 필자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비밀은 풀렸지만 왜 인터넷 세상으로 뻗어 나가 더 직접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지 이유가 궁금해진다.

4. 소비자 중심(Consumer-Centered Approaches)으로 다가가는 교회는 힘을 잃을 것이다.

1980년에서 몇 년 전까지 많은 교회의 성장은 소비문화의 시대에 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이끌었다. 그런 접근에 항상 비판적이었지만, 정말 큰 결과를 낳아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실제로 예수님과 교회를 많이 따랐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기독교는 사명과 관계가 없고, 짜내는 것에

관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간은 연관돼 있다. 그리고 그 약간의 수치는 상당히 높다.

또, 다시 냉소적인 사람에게 이것은 단순히 교회 문제만이 아니다. 인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10분 동안 교회에서 나와서 어느 회사 문화나 비영리 회사 문화에 들어가 보면 유사하게 복제된 문제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인간은 구원이 정말 필요하고, 죄악과 상처의 자리와 통한다. 이에 예외란 실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문화가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결국 우리 교회와 단체는 약함보다는 집단적인 힘을 반영해야 한다.

일명 Y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대학을 떠나고 일터에 진입하면서 더 건강한 일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전 세대가 참았던 고통을 자신들은 참지 않을 것이라고 큰 목소리로 지체 없이 알리고 있다.

직장을 다니는 자원봉사를 하든 자영업업을 하든, 이 세대는 결국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알렸다. 그리고 빈틈없는 사

장으로 일하는 청년은 결과나 사람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한다.

결국, 청년을 대하는 방식이 봉급을 주는 방식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오늘날은 아무리 봉급이 많아도 어떤 고통을 보상에 주지는 않는다고 믿는 시대다. 직장과 집단 문화를 말할 때 정말 새로운 날이 왔고, 이는 또 좋은 일이다.

문화적 가치가 이전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가치에 의거해 살아간다는 것은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 가치는 액자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진정성과 성실함은 어느 지도자에게가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특히 현대 문화에 필요하다. 이것은 언제나 기독교인의 본보기가 됐어야 할 덕목이다.

우리의 문화는 가장 좋은 사람들, 직원과 봉사자를 유인하고 곁에 두는 가장 중요하고 빠른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위대한 문화는 위대한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화는 이들을 쫓아낼 것이다.

2019년 더 좋은 문화, 더 좋은 당성을 만들고 싶은가?

선교의 창 (118)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선교적 시각에서 본 3.1운동

급변은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된 해이다. 그간 우리 민족은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 일제 36년의 압제 속에서 해방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남북으로 찢리고 말았다. 이념적 대립은 6.25라는 동족상잔의 아픔을 낳았다. 포화의 잣대미 위에서 우리 선조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 와중에서도 풀뿌리를 뜯어 먹으며 산업화의 초석을 놓았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우리 조국은 민주화를 이루어 냈다.

이제 우리 한국은 국력 12권 안에 들어 있는 선진나라가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한민족 독립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흑암의 권세 속에 있고 남북은 여전히 대치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동족끼리의 힘을 소진하지 말고 한결같은 통일길로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3.1운동이 남긴 정신이다.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시간의 열차(Time Machine)을 타고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그 때의 거친 숨소리, 만세 삼창이 들리는가? 조국을 위해 장렬히 산화한 선열들의 절기가 느껴지는가?

1. 역사적 배경
일본 왜구(倭寇)들은 1592년에서 1598년까지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일으켰다. 저들은 7년 동안이나 우리 민족을 살상하며 한반도를 축대밭으로 만들었다. 1895년에는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가 일본군의 암살단에 의해 시해(弑害)되었다. 일제는 1905년 11월에는 을사늑약을 통해 우리

3.1 운동은 일제의 만행에 저항하는 민족적 절기였다. 당시 1.3% 밖에 안된 크리스천들이었지만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결기 있게 세상을 선도해야 한다.

외교권을 강탈했다. 이듬해 2월에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행정권 사법권 경찰권을 빼앗았다. 1907년에는 조선 군대를 해산하고 헤이그 밀사사건의 책임을 물어 고종을 폐위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 8월에 국권을 빼앗았다.

폭력에 의해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언론, 결사, 집회의 자유와 정치, 사상의 자유를 박탈했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한국인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까지 억압하였다. 도대체 일제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 민족과 국가를 이렇게 수탈하며 암살해 왔단 말인가?

2. 삼일운동의 거사
1919년 1월 21일에 고종황

제께서 승하하셨다. 사람들 귓전에는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팽배했다. 그렇지 않아도 울분이 차 있었는데 그 소문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마침내 거사는 3월 1일 서울의 파고다공원과 태화관과 전국 9개 지역에서 '독립선언서'를 선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뒤 1년여에 걸쳐 우리나라 안과 만주·연해주 등 해외에까지 확산된 거족적인 항일민족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삼일운동의 민족대표 33인은 기독교도 16명, 천도교도 15명, 불교도 2명이었다. 기독교 인사 16명을 직분별로 보면 목사 10명, 장로 2명, 전도사 3명, 집사 1명이었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의하면, 1919년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 간 독립시위에 참가한 인원은 2,023,098명, 피검자 46,948명, 사망자 7,509명, 부상자

3. 유관순 (柳寬順) 열사의 기도

삼일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은 유관순 열사이다. 그녀는 1916년 미국인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화학당 초등부 3학년으로 편입했다. 1919년에는 이화학당 고등부에 진학하였다. 그녀는 총독부의 휴교령으로 천안으로 내려와 후속 만세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가 체포되었다. 결국 일제의 가혹행위로 인해 1920년 9월 28일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사망했다. 열사의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내 손톱이 빠져 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왜(倭)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 선교사들의 역할

삼일운동 당시 주한 외국 선교사들은 로마가톨릭의 54명을 포함하여 400여 명이었다. 그들 중 몇몇은 친일적 인사들도 있었으나 대다수는 정교 분리론에 입각해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사건이 전개되면서 저들은 일제의 폭

력을 목도하며 의분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날조된 105인 사건 이후 "만행 앞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No neutrality for brutality)"고 했다. 제암리 학살 사건에서 이런 인식은 더욱 심화된다.

시위자를 돕던 마펫(S. A. Moffett)은 일제의 만행이 혼족처럼 잔인하다고 비난하였다. 모우리(E. M. Mowry)는 독립선언서를 영역하고 피신한 학생들을 도와주었다는 죄명으로 6개월간 투옥과 강제노동을 당하였다. 캐나다장로교회는 1919년 6월의 총회에서 일본의 야만적 고문에 강경한 반대를 결의하였다. 원한경(H. H. Underwood)은 제암리교회 방화 살인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과 함께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여 그 사진이 미국 하원 의회록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YMCA의 질레트(Gillett, 吉禮泰)도 시위 사실을 영국에 알렸다가 조선에서 추방되었다.

이렇게 선교사들은 만세운동에 대한 실상과 일제의 만행을 활영하고 기록하여 고발함으로써 한국의 독립에 대한 국제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였다.

5. 3.1운동의 영향

이 운동은 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후 강요된 포화한 무단식민통치로, 실의와 좌절 속에 빠져 있던 한국민에게 민족 독립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해 4월 11일 상하이(上海)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됨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일어나고 거족적인 민족 독립운동의 구실점이 형성되었다. 또한 삼일운동에 참여했던 민중들의 정치의식이 고조되어 국내 민족운동 기반이 강해졌고, 국산품애용, 근검, 절재운동, 계몽운동 등으로

로 발전하였다. 나아가 삼일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수단인 무단정치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어 비록 가시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문화정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3.1 운동은 해외에도 영향을 미쳤다. 바로 중국의 5.4 운동 그리고 인도의 초대 총리를 지낸 자와할랄 네루 역시 영국에 의해 투옥되었을 때 딸인 인디라 간디에게 보내는 편지에 3.1운동과 유관순 열사를 찬양하며 이들을 본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맺음 말

삼일운동은 기독교와 민족주의는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기독교적 민족주의(Christian nationalism)"를 형성하게 되었다. 기독교 신앙이 정의·자유·평화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대에 둘 수 있다면, 민족적 양심은 자주·평등·해방을 목표로 한 독립국가·민족자주의 건설에 있었다. 우리는 3.1운동에 참여한 선진들이 행동하는 양식으로 신앙과 나라 사랑을 일치시킨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는 모세·삼손·다윗·다니엘의 노선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올바른 신앙이란 민족과 국가 사랑을 수반한다. 우리는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분단된 한반도는 비극의 상징이다. 어언 70년이 흘렀다. 우리에게 완전한 독립은 아직 오지 아니 했다. 이번 100주년이 된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민족 크리스천들은 자아와, 가정과, 교회의 담을 넘어 조국을 응시해야 한다. 그리고 피 묻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선열들의 숨결과 신앙과 행동을 본 받아야 한다. 유관순 열사의 기도소리가 귓전을 때리지 않는가?

jsong007@hanmail.net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혈관 손상으로 객혈이 일어나기도

기침을 할 때 피가 섞여 나온다면 의학적인 상상이 없는 일반인들은 몹시 놀랄 것이다. 객혈의 원인은 폐암이나 결핵과 같이 심각한 폐질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코피가 목 뒤로

넘어갔거나 감기 후에 오는 기관지염처럼 가벼운 질환으로 객혈이 생길 수 있다. 또 기관지 확장증과 같이 평소 가지고 있던 폐 질환 때문에 피가 나올 수도 있다.

- 옷가게를 하는 50대 중반의 남성인 박 씨는 일주일 전

부터 기침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와서 병원을 찾아왔다. 약 2주 전부터 감기를 앓아왔던 박 씨는 감기증상은 거의 다 나은데 기침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일주일 전부터는 붉은 피가 가래에 섞여 나오기 시작했다. 열이 나거나 숨이 찬 증상은 없었다. 박 씨는 20대 초반에 폐결핵을 앓았고 이 때문에 9개월간 약을 복용하고 완치되었다. 정기 건강검진 때마다 엑스레이 검사상 폐에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하지만 이 때문에 신체적으로 불편한 적은 없었다. 현재 복용하는 약은 없었지만 평소에 감기에 걸리면 의사의 처방전 없

이 항생제를 자주 복용해 왔다. 담배는 전혀 피우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는 독실한 종교인이었다. 의학적 검진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흉부 엑스선 검사상 결핵 후유증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다. 폐 기능 검사상 폐기능이 조금 감소해 있었다. 박 씨는 기관지 확장증으로 인한 기관지 내출혈로 잠정 진단받고 가래 검사와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항생제 치료에도 박 씨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아 폐 단층촬영 검사를 해보니 폐 우측 상엽에 심한 기관지 확장증이 보였다. 가래 검사에서 현재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이 발견

되어 다른 항생제로 바꾸어야 했다. 일주일 후 박 씨의 증상은 호전되었고 객혈은 없었다.

기관지 확장증(Bronchiectasis)이란 만성 폐질환의 일종으로 기관지염, 폐렴이나 폐결핵 등을 앓은 후 기관지벽의 손상으로 인해서 기관지가 영구적으로 확장된 상태를 말한다. 감기나 폐렴 등의 염증 반응이 폐에 생기면 정상적인 기관지는 가래를 쉽게 바깥으로 배출해내는 데 반해서 기관지 확장증이 생기면 이를 배출해내는 능력이 감소해서 쉽게 폐렴이나 농양이 생길 수 있고 기관지 혈관을 손

상해서 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다. 기관지 확장증을 앓는 경우는 감기 후에도 쉽게 폐렴으로 진행하거나 객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를 조기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관지 확장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평상시에 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해서 자주 폐 질환을 앓는 경우는 적절한 감염 치료와 지속적으로 객담을 배출해주는 것이 좋다. 적절한 치료로도 염증이나 객혈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는 증상이 심한 부위만 잘라내는 폐엽절제술이 필요하다.

중남미 4개국에 이어 유럽 지부 설립

글로벌한인뉴욕여성목회 제 27차 어머니기도회

글로벌한인뉴욕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심화자 목사)는 지난 2월 20일 오전 10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양승호 목사)에서 제 27차 어머니기도회를 열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글로벌한인뉴욕여성목회자연합회 제 27차 어머니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1부 예배는 심화자 목사 인도로 기도 김사라 목사, 성경봉독 정도보라 권사, 특송 오카니나연주, 설교 최근선 목사, 합심기도 안경순 목사, 헌금특송 남상보 집사, 헌금기도 조문자 목사, 선교보고 권캐더린 목사, 축도 전희수 목사 순서로 진행했다. 최근선 목사는 "예수님이 아는 사람"(요10:27-29)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책성

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라며 "2019년이 벌써 2월도 다 지나고 있지만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될 때 예수님이 아는 어머니들이 돼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성경통독에 도전했다. 합심기도는 안경순 목사 인도로 △회개와 성령충만을 위해 △조국과 미국을 위해 △글로벌한인뉴욕의 확장을 위해 △회장단과 임원 및 모든 회원목사들의 가정과 자

녀, 섬기는 교회를 위해 △어머니들의 제복기도를 놓고 뜨겁게 기도했다.

선교보고에서 권캐더린 목사는 중남미 4개국 어머니기도회가 시작됨을 보고했다. 특별히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전희수 목사와 함께 엘살바도르, 콜롬비아를 직접 방문해 어머니기도회를 세우고 현지 어머니기도회 지도자들을 세웠다고 보고했다.

성경적 가정의 가치를 심어주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어머니들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어머니기도회는 현재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콜롬비아 4개 지역에 지부를 설립했다. 한편 3월 중순에는 스코틀랜드(회장 김영란 선교사)에서 시작될 유럽어머니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제 28차 어머니기도회는 3월 20일에, 29차 어머니기도회는 4월 17일 콜롬비아 회장 김해정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한다.

(기사제공: 글로벌한인뉴욕여성목회)

<2면에서 계속>

최근 정부들이 어떤 정책입안자들의 예상보다 큰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무제한 부채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돌발이 의사의 진단이다. 밀레니얼 사회주의자들은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환경문제에서도 그릇된 결론에 도달한다. 이들은 인간의 혁신을 독려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세수중립탄소세의 역할을 전면 부정하고, 중앙집권형 계획과 그린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예산지출을 지지한다.

이들의 "민주화"된 경제의 비전은 규제력을 집중화하기보다는 확산시키는데 있다. 지역주의를 지지하는 본지(이코노미스트)에게도 어느 정도 매력 있는 비전이라는 하지만, 지역주의의 전제조건은 투명성과 책임성이다.

코빈의 주장대로 영국의 상하수도 시설이 다시 국유화된다면 지역 민주주의의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에서도 지역 권한의

강화는 종종 외부인의 배제와 님비현상(NIMBY,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않은 일을 반대하는 행동을 뜻한다. Not In My Backyard의 약자로 쓰러지 소각장, 장애인 시설, 노숙자 시설, 공항, 화장장, 교도소, 임대주택과 같이 많은 주민들이 혐오하는 특정 시설 또는 시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사회적 현상을 말한다)과 같이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관료주의는 어떤 레벨에서도 특수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권력위임은 자유시장에서의 개개인에 대한 위임이다.

신 좌파의 민주화 열망은 기업에까지 적용된다. 밀레니얼 사회주의자들은 기업의 주식을 노동자들이 나눠 소유하게 되기를 원한다. 독일과 같은 나라에 그런 전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세계

화로 인한 원격 조종에 대한 의심 때문이다. 노동자들에게 변화를 거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은 곧 경제가 경직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곧 경제제기 기회도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으로, 국가는 기업이나 일자리를 변화로부터 보호하기보다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일자리가 아닌 노동자들을 정책의 포커스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재분배에 집착하기보다 지대추구를 줄이고 교육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후변화는 시장의 장치와 공적투자를 함께 사용할 때 해결될 수 있다. 밀레니얼 사회주의가 현 상황에 신중한 도전장을 내미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시대의 사회주의와 마찬가지로, 집단의 행동은 부패할 수 없다는 믿음과 개개인의 활력에 대한 무분별한 의심으로 얼룩져있다. 정말로 리버럴이라면 이에 반대해야 할 것이다!

원로칼럼

목회와 책(하)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책, 비전이 되다
책에 관한 필자의 비전이 있다. 그것은 기념도서관을 만드는 것이다.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한국교회 지도자센터와 함께 도서관을 만들고,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만들어 제공하고 개방하는 것이 필자의 비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 전문성이다. 각 대학마다, 신학교마다 엄청난 장서를 자랑하는 도서관이 있다. 그러나 필자가 구상하는 도서관은 리더십 중심의 세계 석학들의 저서와 논문들, 국내 학자와 신학자들의 저서와 논문들을 총망라해 수집하고 도서관의 성격을 특성화 하는 것이다. 이미 기초자료 조사가 끝난 상태다.
둘째, 접근성이다. 오고 가기가 편해야 한다. 오다가다 들을 수 있는 위치와 거리가 고려되지 않으면 찾는 사람의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거리와 교통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친밀성이다. 누가 언제 찾아와도 편안한 도서관, 낯설지 않은 도서관, 내 집 같은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기도하고 명상하고 편히 쉬면서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는 도서관 그리고 성경, 찬송만 가지고 와도 설교준비가 넉넉히 갖춰진 도서관, 여가를 즐기고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된 도서관, 그런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
이러한 특징을 살린 도서관이 되려면 '함께'라는 공통분모가 형성되어야 한다. 사실 도서관 이미지를 벗지 못하면 자연히 발길이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 수집은 각 출판사의 기증도서, 은퇴 교역자의 장서기부, 학자나 신학자들의 기증도서 그리고 구입 장서 등으로 장서량을 불러 나갈 계획이다. 긍정적이고 발빠른 동지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목회자의 서가가 빈약하다는 것은 사교의 영역이 협소하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서가를 메울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쉼터, 기도터, 연구터, 자

개발터가 될 것이다. 이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멤버십을 제공하고 건설적 의견을 한 데 모아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갈 것이다.
한때 컬러 TV가 보급되기 시작하자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영화시대의 막은 내렸다. 누가 영화관을 찾아가 영화를 보겠는가?"라는 비관론이 번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연간 1억명이 극장을 찾아 그것도 주로 국산영화를 관람했다고 한다. 컬러 TV와 영화는 대결구도가 아니었다.
지금 우리는 무한 정보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다. 온갖 세계의 정보를 한 자리에서 섭렵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IT 황금시대를 맞이했다. 그렇다고 활자문화는 사라지는가?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책을 읽어야 사교의 틀이 든든해지고 폭이 넓어진다.
목회자는 생각이 들적이고 폭이 크고 넓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고자료로서의 아니라 지식의 양식을 위하여 양서를 구입하고 읽고 사고하기를 힘써야 한다. 통 좁은 목회자를 만나거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교회! 이젠 세계 어느 곳을 가든 자랑스럽고 대견한 교회로 성장했다. 물론 문제도 있고 사고도 치고 낮을 들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세 부분이지 전체는 아니다. 그 정도의 사건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나 있었다. 잘못을 정당화하려 든다든지 교묘한 술수로 포장하려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한국교회! 함께 정신 차리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가자. 실추된 위상을 되찾고 민족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자. 우리네가 누리는 이 엄청난 복을 두 무릎을 꿇고 감사드리자.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럼 없는 유산으로 대물림하자. 그중에 하나가 멋진 도서관이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이 크고 강하다.
주여, 이루어 주소서.
iamcspark@hanmail.net

세계기독교언론인협회 독후감 응모전 장려상



홍정주 집사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페이퍼'를 읽고 나서

참으로 오랜만에 책을 손에 들었다. 이 책은 주일예배가운데 목사님이 언급하신 책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가님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잘 알 것 같았던 것들에 대한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하게 됐다.
희생이 뭐냐? 페이퍼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favor,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무엇인 듯하다. 그것이 무엇일까?...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페이퍼를 사람들에게 주며 받고 살고 있는가?
작가님이 베푸는 사랑이, 아니 큰 희생이 작가님에게 얼마나 큰 페이퍼로 돌아왔는지 책을 읽으며 알게 되었고 깊이 공감하게도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맘속엔 질문이 떠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까?..."라고.
책을 펴고 프롤로그를 읽으면서부터 내 맘에 질문은 더해져 갔다. 생명줄과 같은 심장. 병실에서 목마르게 기다려온 심장이식. 심장 이식이 아니면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러기에 안타깝게 기다렸던 심장이식 수술...

그러나 작가보다 더 급한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변민이 많았을까? 생각해 보았다. 성령님의 음성과 인간의 생각이 요란스럽게 부딪치고 싸워야 했을 건데... 그 감하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게 된 작가님의 간증 속에서 얼마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꼈는지 모른다. 사랑은 희생인데... 희생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는데...
행여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커다란 희생을 요구하신다면 나는 그리할 수 있을까? 깊은 고민에 빠져보기도 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말씀하는데 분명 작가님이 큰 그릇이기에, 이미 준비된 자이기에 사용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이 책속에서 작가는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이야기도 진솔히 들려줬다.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형. 먼저 암으로 떠나보낸 동생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서 그는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된다'고 적었다. 그리고 '사랑은 나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작가의 이야기를 읽으며 어떻게 이런 어려운 고비 고비를 넘길 수 있었을까 생각에 잠겼다.
작가는 이 고난을 뚫고 세계적인 건축설계 회사의 주인이 되는 축복

의 자리에 앉게 된다. 그러나 오늘이 있기까지 기업주로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도 극심했다. 그때마다 기도한 직원이 놓치지 않겠다는 사랑을 품고 승리할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이 페이퍼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 책의 한절 한절은 사랑의 고백이며 예수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작가는 살아가는 동안 세 번째의 심장이식을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Favor가 있을 줄 믿기 때문이라고.
이 책을 덮으며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보게 된다. 하지만 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나에게도 감당할 힘을 주시리라 믿기 때문이다.
나도 얼마 전 하나님이 주시는 페이퍼를 참 많이 누리며 살았다. 내가 나는 아주 작은 것들을 주님은 귀히 보셔서 나에게 새로운 지경을 넓혀 주셨다. 그것도 나 혼자 가 아닌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터전도 만들어주시고 모든 이들의 축복과 기도 속에 삶의 터전을 옮기게 하셨다.
나는 기대한다. 작가님에게 두 번째 번 새로운 삶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리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단지 그 바탕에는 순종이 있어야 하기에 나도 그 순종의 사람으로 살자고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내 맘속에 들려졌던 질문들을 내 삶속에서 하나씩 풀어가며 살아가기를 소원한다. 또한 모든 이들에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페이퍼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지며 작가님 또한 귀하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더 건강하시고 더 좋은 감동의 책들로 힘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한다.



뉴욕실버선교학교 제 28기 개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뉴욕실버선교학교 제 28기 개강예배

뉴욕실버선교학교 제 28기 개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리는 주제로 뉴욕실버선교회(회장 김재열 목사)가 주관하는 선교학교는 10주간에 걸쳐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저녁식사를 하고 8시부터 강의가 진행된다.
4월 29일 중강예배를 마치고 5월 6일부터 11일까지 니카라과(김기선 선교사)로 단기선교를 가게 된다. 2월 25일 현재 선교 참가자는 25명이 등록돼 있다.
개강예배는 훈련원장 김경열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권영국 목사, 성경봉독 이승진 목사, 특송 김영환 전도사, 설교 김성기 목사(

뉴욕교회), 헌금기도 이지용 목사, 환영사 김재열 목사, 축사 이재봉 목사, 축가 황총철 선교사, 축무 필그림선교무용단, 광고 장충현 장로, 축도 박준열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 후에는 사무처장 장충현 장로 인도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한편 선교회는 뉴욕실버선교회 발간을 준비 중에 있다. 자세한 문의로는 김경열 목사(917-963-9356)나 장충현 장로(646-309-1787)에게 연락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영어로 보는 성경 (8)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본 강의는 영어로 말씀을 읽는데 필요한 기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따라서 깊은 신학적 해설이나 논쟁은 피하고 각권의 주요말씀 한 두 구절씩 성경의 순서를 따라 진행한다.

Joshua 1:7, 8

7)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 careful to obey all the law my servant Moses gave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hat you may be successful wherever you go. 8) Keep this Book of the Law always on your lips;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NIV 2011)

WORD & IDIOM

* courageous: 용감한 * servant: 종, 하인 * successful: 성공한, 성공적인 * turn from ~: ~로부터 방향을 바꾸다, 그만두다 *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 keep A on ~: 위에 (~하면서) 계속 A를 유지하다 A * meditate on ~: ~에 대하여 묵상(숙고)하다 * day and night: 낮과 밤 * prosperous: 번영한, 번창한 *so that A may ~: A가 ~을 할 수 있도록

GRAMMAR

■ (7)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 careful to obey all the law 강하라 그리고 아주 용감한 조심하라 순종하기(위해) 모든 율법(을) my servant Moses gave you: 나의 종 모세(가) 주었다 너(에게) => (너는) 강하고 아주 용감하여라.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 조심하여라.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hat you may be successful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마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로 가든지 =>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고자 한다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쳐 정도(正道)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라.

* Be strong: 2형식의 문장(You are strong)에서 2인칭 주어(you)를 생략하고 are를 원형 동사 Be로 바꾸면 명령문이 된다. * to obey all the law : 왜 조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to 부정사(to V)로 부사절을 이끈다. * all the law () my servant Moses gave you; ()안에 선행사 all the law를 가리키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었다. * do not turn from it: it는 율법의 정도(正道)를 가리킨다. * that you may be successful: that 앞에 so가 생략되었다.

■ (8) Keep this Book of the Law always on your lips: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율법 책을 늘 너의 입술에 두어라 그것을 묵상하라 낮과 밤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네가 조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도록 율법 책에 쓰인 => 너는 율법 책을 늘 읽도록 하라;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도록 네가 조심하기 위해 그것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라.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그러면 너는 (~하게 될) 것이다 번영한 그리고 성공한 => 그러면 너는 번영하고 성공할 것이다.

*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written은 현재분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바로 앞의 명사 everything 수식하고 있다. 이 경우 everything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cf) "to do everything (that was) written in it."

STUDY & THOUGH

■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은 법(law), 가르침(teaching), 교훈(instruction)으로 등으로 번역된다. 이것은 단순히 법조문의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지도하고 가르쳐줄 삶의 규범과 꾀대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문자적이고 형식적인 율법 준수를 넘어 그 속에 내포한 진정한 의미와 궁극적인 목표를 살피고 상고하여 지켜야 했다.

■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정제된 관념적 명상(ideological meditation)이나 관조(contemplation)가 아니라 자신의 지(intellect), 정(emotion), 의(will)를 사용한 총체적인 사고여야 하며, 실제의 실천적 행위까지 이르는 추진력을 지녀야 한다. 말씀묵상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다(약2:26).

■ Pursue the life which meditates on the God's word and have the divine nature within your lives and personalities.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하나님의 사람이 구할 것(딤후6:11-12)찬256장

하나님의 직접 부름으로 시작된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구해야합니까? 첫째, 경건의 성품을 구해야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의와 경건을, 사람에게 대해 믿음과 사랑을, 자신에 대해 인내와 운율을 구해야합니다. 이 경건의 성품이 모든 사역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믿음의 싸움을 구해야합니다(12). 내적 외적으로 몰려오는 사탄의 계계를 믿음으로

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셋째, 영생을 취해야합니다(12).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은 영생은 일하는 생명이입니다. 그 생명을 모든 삶에 누리려는 것이 교회이고 목사의 주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의 지도를 따라 이것들을 구해야합니다.

화 사도의 엄한 명령(딤후6:13-14)찬259장

목사에 관한 사도의 명령은 그 근원을 영원히 숨겨진 것을 나타냅니다.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흠 없고 책망 없는 사역자가 되어야합니다(13).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기에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에 나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지는 사람 앞에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회의로부터 부여받은 영원한 사명입니다(13). 그가

받은 목사는 창세전 삼위하나님의 결정으로 된 일이기 때문에 그의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한 부분으로 쓰임받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셋째, 예수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신실하게 행해야 합니다(14). 목사의 직분은 영속적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복음을 사도와 교사인 목사에게 맡기셨습니다.

수 목사의 하나님(딤후6:15-16)찬353장

사도는 계시를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무엇을 발견했기에 경배하며 찬양합니까? 첫째, 복의 원천이신 주권자이십니다(15).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절대주권자로 모든 복의 원천이심을 안 것입니다. 그 사도의 영적경험은 하나님 나라의 대왕을 섬기는 중으로서의 영광스러움을 동시에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큰 분을 섬기는 특권직이 목사와 교회의 부요입니다. 둘

째, 영생의 원천이십니다(16). 그는 영생자제이시기에 그가 없이 생명이 없고 사망만이 존재합니다. 셋째, 성결의 원천이십니다(17). 동시에 그는 거룩하십니다. 교회가 그를 볼 수 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결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모든 방면에 성결의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합니다. 모든 일에 경건의 본이 됩니다.

목 선한사업의 열정(딤후6:18-21)찬434장

하나님이나 재물이냐를 선택해야만 하는 유혹이 항상 도사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정치자로 부름 받은 목사는 선한 일에 초점을 맞춰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재물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쳐야합니다(17). 그때 천국의 의, 평강 그리고 희락을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많은 선한사업을 하려는 욕심으로 총만해야합

니다(18). 그러려면 마음이 착해야 합니다. 품고 인정하고 책임지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일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18-19).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한 영생을 취하는 일 곧, 하늘의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셋째,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과의 다툼을 피해야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뿌리내린 선한사업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목사가 힘쓸 일입니다.

금 진리지식을 전하라(딤후1:1-4)찬427장

디도 목사를 권하는 사도의 가르침은 진리지식을 중심한 전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목사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합니까? 첫째, 사도적 길을 가는 목사는 진리지식을 전해야합니다. 이 진리는 복음이고 성경인데, 언약백성의 믿음의 근거이고 경건의 원천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내용인 영생입니다(2). 이 복음을 전함에 목숨을 거는 것이 목사입니다. 둘째, 목사는 이 진

리를 자기백성에게 전하고 세상에 전해야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3). 어떤 형태로 일하든 목사라면 있는 거기서 복음화하고 진리화 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시행해야합니다. 그래서 설교와 전도와 선교는 목사의 주된 사역이 되어야합니다. 그때 예수그리스도의 사도적 권위가 나타나 은혜와 평강을 온 세상에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토 디도의 목회사역(딤후1:5-6)찬14장

초대교회의 목회사역도 오늘날처럼 신실한 목사를 지역에 세워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 중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섬에 두어 교회를 섬기게 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이기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여러 가지 남은 일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그리스도를 중심한 질서를 위해 갖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목사는 말씀가르침의 질서로서 영적권위를 세워야합니다. 둘째,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교회로 세워 장로들로 지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전도한 후 세례를 주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활에 순종케 해 복음을 모르는 각 지역에 교회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합니다.



강남중앙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2)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32-490-7000, Fax: (82)2-436-3770 서울시 동부동 영우동 340-(131-231)	등본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영양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3,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9:00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3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5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주일6부: 오후 7:00(대일) (절기예배: 오전 11:00)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42-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강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중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구 인사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05-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고로동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incheon.org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인구 안암동 3길 50-1 www.anamj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예배4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대일): 오전 5:30/오후 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불암동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정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전 11:30 주일6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



드라마 구약 (4)



김덕수 목사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담임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드셨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것입니다. 그 헌법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율법을 받은 하나님 나라 국민들이 영토를 찾으러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였습니다. 민수기의 이야기는 시나산에서 시작하여 요단동편 모압 평지에서 끝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고별설교인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 직전에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국법을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레위기와 신명기를 힘들어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했느냐하면 너무나 많은 규례와 법들이 기록되어 있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기와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우

리들에게 엄청난 정보를 주신 책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민을 오기 전에 미국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살게 될 LA K타운 혹은 오렌지카운티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여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이민을 오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에 대한 정보와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모든 정보들의 모음집이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입니다.

먼저 레위기는 크게 4가지의 정보로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 세 번째는 의식주에 대한 정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정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정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에 관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제사와 절기입니다.

제사의 기본은 번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할 당시 유월절에 흠 없는 짐승을 죽여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마치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는 그 날 죽이지 않으시고, 한 짐승을 잡으셔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에덴동산에서 짐승을 잡으셨던 그 장면 그대로, 유월절에 흠없는 짐승을 잡았던 그 모습 그대로 재연한 것이 제사의 기본인 번제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랑 때문에 그들이 살려내신 하나님에 대한 사

랑을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뿐만 아니라 자녀세대들에게까지 전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절기입니다. 매년 그 날이 되면 출애굽 시켰던,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한 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기념하며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의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정보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입니다.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레위기 19장과 25-26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정의법, 약자보호법, 토지매매를 금지하고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하는 등의 이웃사랑에 대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의식주 정보

주신 정보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

화와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보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정보는 18장에 기록된 가나안에 대한 정보입니다. 대부분이 성적인 음란과 타락입니다. 18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도대로만 살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고, 18장 마지막 부분인 24-30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꼭 하나님의 법도대로만 살라고 당부하십니다. 그 당부의 말씀 중간에 끼어있는 가나안의 실상은 음란과 패역입니다. 거의 대부

시겠다는 정보로 가득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로 이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꼼하게 챙기신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점정리 신명기

출애굽 1세대들을 통해서 주신 정보가 레위기였다면,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주신 정보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요점정리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레위기의 중요 내용을 요점 정리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최근까지의 역사를 간단하게 기록한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요점정리구요. 그리고 4장부터 26장까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규례들을 요점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장부터 34장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언약하시며 신명기를 마칩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드셨고, 그 국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에게 영토를 주시는지...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도 기대되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dsukim@gmail.com

하나님 나라의 국법 레위기와 신명기 레위기에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의식주, 가나안에 대한 4가지 정보 담겨

는 사람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정보가 세 번째 '의식주에 관한 정보'입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정보입니다. 11장에서는 보건의 복지부와 산부인과 정보, 13장에서는 피부과 정보, 14장에는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곰팡이 관리에 대한 정보, 15장에서는 비뇨기과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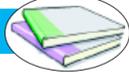
즉, 주신 정보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을 주어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은 극히 악하고 패역한 문

명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인신제사, 동성애, 수간 등의 패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성행하고 있던 문화와 종교였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만연하고 있는 음란과 패역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풍요와 다산, 즉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들은 음란하였습니다. 근친상간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짐승과의 교합까지 서슴치 않았고, 풍요를 위해서는 자식까지 불구덩이에 스스로 던져버리는 악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동성애와 짐승과의 교합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

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

책 소개



마스칼 꽃향기

저자 정권수 선교사

온두라스 선교사로 사역한 정권수 목사가 최근 "마스칼 꽃향기" 제 3권을 출간했다. 이 책은 "솔로몬을 찾아간 스바 여왕" 1권과 2권에 이어 '3000년전 미스터리 에티오피아 스바 여왕의 향기가 가득한

악숨'이라는 설명을 붙여 3권으로 "마스칼 꽃향기"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것. 2018년 9월 7일부터 14일까지 LA 생수의강교회(강신욱 목사) 에티오피아 의료선교와 복음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일정



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추천사를 쓴 강신욱 목사는 필자가 구약성경의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와 그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 메넬릭이 에티오피아 1대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 아버지 솔로몬 왕이 12지파 1천명의 신복들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밝혔다. 그 후 3천년이 지나는 동안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증거들을 확인하고 사진들을 찾으려 노력했으며 결국 에티오피아 악숨에 있다는 언약궤의 흔적을 찾아가는 모습과 그 열

언약궤를 찾아 악숨으로 가는 여정 그려

정을 소개하며 이번 선교여행에서 그곳을 지키는 한 제사장 을 만난 것도 언급했다. 이 책은 에티오피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만난 승무원 티나와 함께 언약궤가 있는 악숨(Axum,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

스 아바바에서 95km)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렸다. 또 그 가운데 한국전에 참전한 에티오피아의 잊혀진 영웅들의 이야기도 담고 있다.

저자는 "악에 맞서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며 한국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셀라시 황제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쫓겨나 몰락하고 20년간 공산주의가 집권함으로 참혹한 상태가 돼 버린 에티오피아에 한국 교회

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후기에 적기도 했다.

책은 '에티오피아로 가는 길'로 시작해 '한국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탑(춘천시 근화동)'까지 27개의 이야기로 전개된다. 필자는 머리말과 후기,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이 글을 쓰고 나서, 참고문헌 등을 통해 이 책의 진정성을 전하려 노력했다.

총 253페이지. 에네켄한인후손 후원재단에서 펴냈다. ▲필자 연락처: ksjung818@gmail.com

(유원정 기자)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 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chelor of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성서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ster of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al Arts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